

호남학 산책

고문서와 옛 편지



고문서와 옛 편지

스승의 애뜻한 마음, 제자의 존경. 서로 통하다	5
합격 꿀맛, 떠도는 쓴맛	13
시폐를 직설하다	22
실학의 마음을 품은 책, 『환영지(寰瀛誌)』	31
내 일같이, 우리 일처럼	39
배고픔을 견뎌야 할까, 자식을 팔아야 할까	47
부용정(芙蓉亭), 연못 도매(盜賣) 사건	54
유산 상속, 자격부터 따져야	62



스승의 애뜻한 마음, 제자의 존경. 서로 통하다

‘시 한 수로 박한 노자를 대신하네. 부디 자신을 아끼게나.’

‘말 가족에 싸여 돌아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조선, 서양 오랑캐와 처음으로 대적하다

1866년 9월(음력 8월)에 프랑스 함대가 서해로부터 한강 줄기를 타고 올라와 여러 지역을 정탐하고 물러갔다. 10월 14일(음력 9월 6일) 프랑스 제독 피에르 구스타브 로즈는 함대와 600여 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고 갑곶에 상륙했고 10월 16일(음력 9월 8일) 강화도 성을 공격했다. 그 때 서울에 있던 기양연(奇陽衍)의 말에 의하면 음력 8월에 ‘서양 선박이 부평 땅에 정박했었고 16일 밤에는 염창(서강근처)까지 와 대포소리가 한양까지 진동했다.’고 했고 9월 8일에 ‘서양의 배가 소요를 일으켰는데 큰 배 6척, 작은 배 15척이 있었고 강화도 땅에 정박했다.’고 하였다. 당시 양현수는 정족산성에서,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수비했다. 결국 11월 10일(음력 10월 4일)에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에서 빠져나갔다. 이 사건이 병인양요(丙寅洋擾)다.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일으킨 소요라는 말이다.

비록 강화도에서 철군하기는 했지만 프랑스 군대는 민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도 불태웠고 의궤를 포함하여 340여 책의 문서와 은괴 수천 냥을 약탈해갔다. 외규장각은 1782년 2월에 설치된 왕실도서관으로 주로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였다. 병인양요 때까지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자료는 약 1,042종(1,613책)으로 꽤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 중 340여 책이 약탈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 없어졌다.

조선으로서는 최초로 서양 군대와 무력 충돌을 경험한 사건이었고, 왕실의 기록물과 재물을 약탈당한 치욕스런 사건이었다. 프랑스 군대의 침략, 약탈 소식은 강화도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 퍼져 조선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대원군은 발빠르게 대처했고 종친부가 먼저 나서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하는 데에 몰심 양면으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종친부는 다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에게 통문을 돌렸다.

석전 이최선, 서양 오랑캐 응징 위해 분연히 일어서다

양요 소식과 종친부의 통문은 호남에까지 이르렀다. 호남은 대대로 ‘의향(義鄕)’, ‘절의의 고장’이라는 명성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고경명, 김덕령 등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워 물리쳤고, 이순신은 호남에 거점을 두고 왜적과의 해전을 거의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병인년 프랑스 군대가 조선 땅에 침략하여 조선 백성을 죽이고 국가 기록과 재물을 약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호남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주도한 이는 석전 이최선이다. 그는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서 종친의 혈족이었다. 4대조 이서(李緒)가 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이래 대대로 살았고 조부 이세용(李世容)이 창평 장전으로 옮겼다.

이최선은 창평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규형(李圭亨)이 노사 기정진과 동학인 인연으로 기정진을 스승으로 모셨다. 기정진은 바른 학문을 보호하고 사악한 학문을 배척한다는 이른바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강조했다. 1866년에는 서양 제국의 통상 제의를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최선은 스승의 사상을 충실하게 수용했다. 프랑스라는 서양 오랑캐가 조선 영토를 침략해 소요를 일으키고 살상과 약탈을 자행한 사

건은 ‘척사’를 실천하는 의로운 거사[義舉]의 명분으로 충분했다.

이최선은 호남 지역 종친들에게 의거 통문을 보냈다. 글에서 ‘강화도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통문을 돌려 의군(義軍)을 규합하고자 하니 음력 9월 25일까지 구암점(九巖店)에 모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서양 오랑캐들은 처음에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고 이제는 재화를 유통한다는 말로 꾀어 농간하면서 우리 강토를 침략했다.’고 분기(憤氣)를 토하며 의병을 규합하여 강화도로 진군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했다.

스승, 제자의 의기(義氣)를 돋우다:

“남아 입장에서 본다면 불우한 때는 아닐세”

“편지 받고서 자네가 의병에 나아갈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알았네. 시사로 논의한다면 진실로 천지간에 처음 있는 변고이지만 남아로서 평소 마음에 품었던 포부로서 말한다면 불우한 때라고 말할 수는 없다네. 부디 자애하도록 힘쓰게나. 나는 병 들어 발걸음이 문턱조차 넘지 못하니 자네가 가는 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마음만 바람결에 실어 보낼 뿐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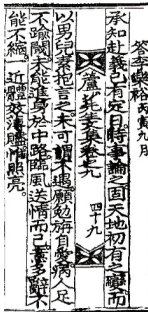


그림 1 『노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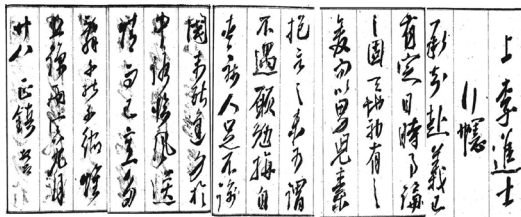


그림 2 『석전문집』(한국역대문집)

이최선은 의병을 규합하여 상경하려 할 때 스승인 기정기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위 글은 기정진이 쓴 답장이다. 시대 상황이 매우 어지럽고 서양 오랑캐가 침략하여 나라가 소란스러운 일은 염려스럽다. 그러나 남아 입장에서 볼 때 불우한 때는 아니다. 남아라면 평소 글을 읽어 실력을 기르고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에는 과감히 나아가 임금과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싸워야 충(忠)을 실천해야 한다. ‘불우’란 실력이나 충심을 드러내어 공업을 성취할 적절한 때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해 소요 상황을 맞이한 그 때는 남아가 임금과 나라를 위해 싸워 평소의 포부를 이룰 수 있는 때이다. 더구나 기정진은 서양 제국이 요구하는 나라 개방과 통상 요구는 철저히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스승의 자리에서 본다면, 의병을 규합하여 싸우러 나가는 제자는 믿음직스러운 뿐 아니라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기정진은 시 한 수를 편지에 동봉한다. 제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며 한편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실어 보냈다.



그림 3 『석전선생문집』(한국역대문집)

금성 가을빛 이별 노래에 스며드는데,
 긴 채찍 주려 해도 늙었으니 어찌하랴.
 종친이니 마땅히 의병 모아 창의해야지,
 경서 읽기 창 휘두르기 어느 쪽 더 나은가.
 다만 황도의 해와 달만 볼 뿐,
 남아로서 어찌 푸른 도롱이 입고 누워만 있겠나.

金城秋色入離歌
 持贈長鞭奈老何
 宗姓宜爲編戶倡
 橫經孰與揮戈多
 但看日月麗黃道
 焉有男兒臥綠蓑

날아가는 기러기 길에서 만나면,
한강물 잔잔하고 물결 일지 않는다 전해주게나.

客裏若逢賓雁翻
爲傳漢水靜無波

이 편지와 시는 음력 1866년 9월 28일에 썼다. 이최선이 호남 지역
종친들에게 통문하여 음력 9월 25일까지 구암점으로 모이자고 요청한
사실을 상기할 때 아마도 이최선이 출발하려던 전후에 부친 듯하다.
의병으로 나가는 제자가 오랑캐를 물리쳐 평온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한껏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것이다.

스승의 바람 대로 기쁜 소식 전하다 :

“‘물결 일지 않는다’는 징조를 알았습니다.”

이최선은 통문에서 음력 9월 25일에 구암점에서 만나자고 했으니 적
어도 9월 25일 이후에 의병대를 이끌고 출발했던 듯하다. 프랑스 함대
가 9월 8일 강화도를 공격하고 10월 4일에 철군했으니 그가 출발한 시
기는 싸움이 시작된 지 거의 20여 일이 다 된 때였고 한양에 닿았을 때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는 프랑스 군대와 싸워 적을 베지 못한 일
을 아쉬워했고 무엇보다 당시 ‘적이 살아서 돌아간 사실’에 대해 분개
했다. 그는 한양에 도착하여 전투 소식을 듣고 운현궁에 들어간 이후
에야 기정진의 편지에 답장을 썼다. 편지에서 그는 스승이 자신을 격
려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늘의 도움으로 ‘요망
한 도적[妖寇]’들이 물러나 다행이라고 하였다.

“제가 의분에 격동되어 성공할지 실패할지 가리지 않고 의병부대를 규
합하였습니다. 제가 떠날 즈음에 편지와 시를 보내시어 지나치도록 칭찬
하고 장려해주셨으니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소 ‘마음 속에 가

득 쌓인 충의는 밖으로 말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말을 달려 종친부에 다달아 왕사(王師-임금의 군대, 나라의 군대)의 첩보를 들었습니다. 곧 운현궁 군대 막사로 들어가 한양으로 오게 된 연유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무사 이경하를 만나 자세히 들으니 총용사 신현을 후방 구원군으로 삼고 양현수를 선봉으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양현수가 갑곶진을 몰래 건너가 정족산성 아래에 숨어 있다가 적들을 습격하여 40여 급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중략)...보내주신 편지에서 쓰신 ‘한강물 잔잔하고 물결 일지 않는다 전해다오.’라는 시 구절을 여러 차례 읊조리면서 오늘 오랑캐를 평정할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에서 이최선은 스승이 평소 ‘안에서 쌓인 충의는 말로써 밖으로 나타난다.’라는 말로 자신을 격려해준 덕분에 의병대를 조직하여 오랑캐를 칠 수 있는 의기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신현과 양현수를 각각 후원군과 선봉으로 임명하여 적을 격퇴하고 40여 명의 적을 죽였다는 소식도 전했다.

승전보는 스승이 가장 궁금해하던 내용이다. 기정진은 시에서 ‘한강물 물결 일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중국 주나라 주공이 다스릴 때 태평성세였다. 이 때 교지국(交趾國,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흰 꿩을 바치면서 ‘하늘에는 거센 바람, 큰 비가 없고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은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마 중국에 성인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고 했었다. 이후 ‘물결이 일지 않는다.’는 말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기정진 입장에서 서양 오랑캐로 인한 소요사태는 우려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아끼는 제자가 의병으로서 참전하였으므로 제자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리했다는 소식은 동시에 나라가 안정되고 제자도 안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스승의 위정척사 사상을 충실히

받아들여 몸소 실천하는 제자였던 이최선은 스승의 속내까지 잘 알고 있었던 듯 승전 소식을 자세히 전했던 것이다.

스승의 격려에 의기로 답하다:

“말 가족에 싸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정진이 편지와 시를 함께 보냈듯이 이최선도 이 편지 속에 시를 동봉하였다. 그는 스승의 시운을 그대로 따라 시를 지어 자신의 의기와 장대한 포부를 표현했다.

전송하는 술잔 멈추고 제 노래 들으십시오, 멧돼지같이 날뛰는 서양 오랑캐 어찌 안 죽일까요. 이제 막 북쪽 한양 전투 소리 급하고, 호남은 예부터 의기 많았지요. 장대한 뜻 품고 어찌 전쟁터에서 죽기 마다할까요, 떠날 때 마음 도롱이 저버리지 않았습시다. 머잖아 말 달려 서쪽 오랑캐 평정하는 날, 잔잔히 흐르는 한강물에 칼 씻을 겁니다.	送我停盃聽我歌 洋胡豕突不殲何 卽今北洛軍聲急 從古南湖義氣多 壯志寧辭裹馬革 離心非是負漁蓑 佇看馳駕西征日 漢水安流洗劍波
--	--

‘호남은 의기 많았던 고장’이라는 자긍심에 찬 이최선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칠 각오를 내비친다. 한나라 때 장군인 마원(馬援)은 일찍이 ‘남자는 마땅히 변방 들판에서 죽어 그 시신이 말 가족에 싸여 고향으로 돌아와 묻혀야 한다.’고 했다. 변방의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 그 시신이 말 가족으로 싸인 채 고향으로 돌아오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최선은 마원의 말을 빌려 나라를 위해서라면 위험한 전쟁터도,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장한 의기를 드러냈다.

기정진은 위정척사를 내세웠고 특히 서양 제국의 통상 요구와 같은 음험한 속내를 간파하여 철저히 배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최선에 게 서양 오랑캐[洋胡]는 조선의 위협적 존재일 뿐만은 아니다. 스승의 말씀처럼 ‘척사’의 구체적, 현실적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 샷된 오랑캐를 물리치는 일은 스승의 사상을 이어 받아 실천하는 길이었다.

스승과 제자가 주고 편지를 주고 받는 일은 일상사이다. 간단한 안부 묻기와 그에 대한 감사의 답장부터 학문적 내용에 관한 제자의 질문과 스승의 답변, 훈인·상례·장례와 같은 일상의 길흉과 관련한 예법을 둘러싼 문의와 답신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노사 기정진과 석전 이최선 사이에 오갔던 이 편지들은 안부도 질문과 답변도 아니다. 서양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 상황 처한 나라를 위해 의병으로 출전하는 제자를 격려하고 아끼는 스승의 마음, 그런 스승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감격하며 승전 소식을 전하고 의기를 더욱 다지는 제자의 마음이 오고간 글이다.

석전 이최선은 스승의 사상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몸소 실천하는 의로운 제자였다. 스승 기정진은 이런 제자가 자랑스러웠을 터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편지와 시로 전했다.

참고문헌

- 권수용 편역(2012), 『부자유친』, 심미안.
권수용(2020), 「외세열강과 호남의 초기의병」, 전남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제4회학술대회 자료집.
김봉근(2004), 「노사 기정진의 사상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조선시대사학보』 30.
노대환(2020), 『『병인양난록』 속 1866년 洋擾의 기억』, 『한국학연구』 57.
성택경(1981), 「병인양요와 우리의 典據」, 『정신문화연구』 12.
이주천(2016), 「병인양요 연구의 사학사적 검토:1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

합격의 꿀맛, 떠도는 쓴맛 곧바로 집에 못 가는 합격 후 생활

1765년 윤 2월 1일 한낮. 생원시 회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다음 날 2일, 영조는 경덕궁 경현당에서 합격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다. 합격자들은 자기 답안지 내용도 읊었다. 서울에서 과거에 응시했던 위백규는 합격자 발표했던 그날 저녁 7시 즈음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이 39세였다.

그가 본 시험은 경의(經義)였다. 『주역』·『시경』·『서경』·『예기』·『춘추』 등 오경(五經)의 구절 중 한 부분을 뽑아 제시하고 그 포괄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것이 문제이다.

위백규가 치른 시험 종목은 경의 중에서 예의(禮義)였다. 『예기』에 있는 ‘고자무실기위고(故者毋失其爲故)’가 질문이었다. ‘친구가 된 이는 그 친구와의 우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기』 「단궁 하」에 나온다. 공자는 친구 원양의 어머니가 죽자 곁을 수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때 원양이 목곽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는데 공자는 못 본 체, 못 들은 체했다. 친구를 책망하지 않았으므로 그와의 오랜 정의(情誼)를 지켰다는 내용이다.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노래를 부른 일, 심지어 어머니 시신을 모실 곁에 올라간 일 등은 정상적인 예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친구를 책망하지 않았으므로 우정을 깨 절교하는 데에 이르지 않았다.

위백규는 ‘공자가 원양의 행동을 못 본 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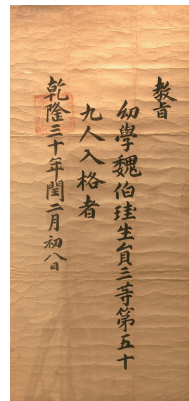


그림 1 1765년 위백규가 생원시 3등제59인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백패. 윤2월 8일에 청방했다고 편지에 쓴 날짜와 백패 발급 날짜가 같다. 출처 『방촌유물전시관 기증. 기탁품도록』

꾸짖지 않고 예의가 아닌 행동을 덮어줌으로써 우의(友誼)를 잃지 않는 것은 성인다운 행동'이라는 답안을 썼다. 그리고 '생원삼등제오십구인(生員三等第五十九人)'이라는 성적으로 생원시에 합격했다. 생원시에서 일등 5인, 이등 25인, 삼등 70인으로 한정하여 모두 100명을 선발했는데 3등 59인이면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생원시 합격자 100명 안에 들었다는 사실은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고향은 장흥이다. 서울과 장흥의 거리는 886리, 곧 360여 킬로미터이다. 지금도 서울에서 장흥까지 자동차로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린다. 장흥도호부였지만 한양에 비하면 시골이었다. 위백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때까지 거의 3년 간 서울 생활을 했었다. 고향을 멀리 떠나 타지에서 수험생 생활을 했다. 아버지 위문덕은 아들의 수험 생활 뒷바라지에 헌신적이었고 아들의 과거 합격을 간절히 바랐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영조, 정조 때 사람이다. 자(字)는 자화(子華), 호는 존재(存齋)이다. 아버지는 위문덕(魏文德), 어머니는 오일삼(吳日三)의 딸이다. 그가 태어나던 날 그의 아버지는 백룡이 뜰로 내려와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아마 이 꿈으로 인해 위백규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일찍부터 컸을 것이다. 서울에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위백규에게 시험을 포기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공손하게 처신하기를 경계했고 고향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서울에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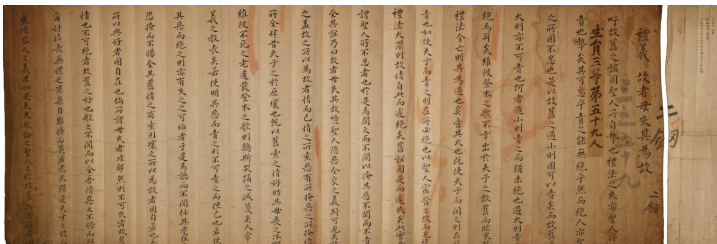


그림 2 1765년 생원시 회시에서 위백규가 작성한 시권. 생원 3등 제59인으로 합격했다. 사전제공 권수용

부하며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수십 년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뤄내는 것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고 토닥여 주기도 했다. 위백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합격의 감격을 편지에 녹여

합격 발표 즉시 위백규는 세광이를 시켜 고향 장흥에 계신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였다. 자신의 수험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며 아들의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답답함을 빨리 풀어드리려고 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그 기쁨과 급한 마음이 녹아 있다.

“세광이는 며칠에 도착하여 기쁜 소식이 담긴 편지를 전했느냐? 봄날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부모님 건강은 어떠하시나? 너희 동생들도 부모님 모시면서 공부하는 생활은 어떠한지. 초 8일에 창방(唱榜)했고, 11일에야 길을 떠났다. 13일에 소사(素沙)에 이르러 병계(屏溪)로 향해 가고 있다.”

편지의 첫 머리에서부터 자신의 합격 소식을 세광이가 언제 전했는지 묻고 있다. 의례적인 안부 인사인 부모님의 건강과 동생, 가족들의



그림 3 1765년 윤2월 합격 후 위백규가 동생에게 쓴 편지.
출처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기초자료해제집2)』

寄舍弟

世光 以何日到傳喜書耶/ 春日漸暄/ 父母主氣體候若何 諸君侍/ 學亦如何 兄 初八日唱榜 十/ 一日發程十三日到素沙 向/ 屏溪而去 直鄉適值順下馬/ 直歸耳 才人則并世光四人/ 山太味必以理諭之 使不得更濟/ 好矣 宴日必無用伎樂 須招本/ 官三絃手亦好 其日婦女皆髻/ 爲可 十八日間 似自德山出礪/ 山站 當自金山寺 經笠巖/ 若可迺觀 南平雲興諸寺亦/ 爲之 仍向雙溪 礪山以下/ 日子須逕度 而完到門日/ 也 馬鞍迺來雙溪 則似好矣/ 館主人亦下來耳 餘忙草/

안부보다 희소식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를 먼저 물었다. 그리고서야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소상하게 전한다. 윤2월 8일에 창방이 있었기 때문에 11일에야 서울에서 떠났다고 했다. 창방은 방방(放榜)이라고도 하는데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일이다. 위백규는 합격증서를 받아 챙긴 후에 서울을 떠났다. 소사(지금의 평택, 천안 부근)를 거쳐 병계(예산의 덕산 부근)로 간다고 했다. 병계에 있는 스승 윤봉구(尹鳳九, 1681-1767)에게 인사 올리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15일에 병계에 도착하여 윤봉구에게 인사 올렸고, 빨리 고향으로 가라는 스승의 재촉으로 곧바로 병계를 떠나 17일에 역참에서 잤다고 하였다. 서둘러 장흥으로 가 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합격 잔치에 대한 기대, 설렘과 걱정.

시험은 사람을 긴장하게 한다. 시험 결과는 더 긴장하게 만든다. 시험 결과가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나 명성과 연계되면 그 긴장감은 더 강하다. 생원시 합격자 명단에 들어갔으므로 대과 곧 문과로 나아가는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조선시대에는 문과를 가장 중시했다. 생원시는 소과(小科)이다. 대과-문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었으므로 문과에 대한 예비시험 성격이 있었다. 문과에 비해 사회적 인정이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



그림 4 김홍도 <무동>속 삼현육각수.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553>

았다. 대과인 문과 시험을 통과했을 때 ‘급제’라고 했는데 소과 합격의 의미하는 단어는 ‘입격(入格)’이었다.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들었다.’라는 의미인 듯하다. 하지만 생원 시 합격만으로도 양반 체면과 위상을 지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자축하거나 축하 받기에 충분했다. 축하 잔치는 집안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백규는 합격 소식이 잘 전해졌는지 묻은 다음 잔치에 대해 언급한다.

“직경이는 마침 내려가는 편이 있어서 곧바로 돌아갔다. 재인(才人)은 세 광이를 포함하여 모두 네 명이다. 잔치날에 기악(伎樂)을 쓸 필요는 없고 고을의 삼현수(三絃手)를 부르는 건 좋겠지. 그날 부녀자들은 모두 비녀로 머리를 장식해도 될 것이야.”

세광이를 포함하여 재인이 네 명이라 언급한 것을 보면 잔치에 재인 네 명을 동원하여 축하 공연을 하려는 듯하다. 공연에 음악이 없을 수 없다. 기생들이 동원되는 기악을 쓸 수도 있고 삼현수를 부를 수도 있다. 위백규는 기생 없는 삼현수들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잔치는 합격자가 고향집에 도착하는 날에 베풀다. 그래서 잔치 이름을 ‘도문연(到門宴)’이라 한다. 잔치 주인공이 집 때문에 도착했음을 축하하는 잔치라는 말이다. 도문연에는 가족, 친척뿐 아니라 지방 수



그림 5 그림 중간부분에 과거급제자 뒤를 따르며 풍악을 울리는 악대가 보인다.

<평생도-丹桂趨庭>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nfm.go.kr>

령을 포함하여 인근의 사람들까지 모여든다. 가족과 친척, 지방 수령은 잔치에 초대되었고 잔치 소문을 들은 이들은 구경하러 온다.

잔치의 규모는 작지 않았던 모양이다. 숙종 때 사람이었던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묘사한 도문연은 노래하고 춤추며(歌舞) 마당에서 광대들의 재주가 펼쳐지는 등 밤새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김유(金樞, 1653-1719)는 ‘도문연을 구경하러 온 마을 백성들이 마당 가득 뻑뻑이 서서 서로 잘 보려고 다투었다.’고 묘사했다. 정조는 도문연 때문에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는 일도 허락해주었다. 도문연은 기생들이 연주하는 음악과 춤, 무동들의 춤, 악사들의 음악, 광대들의 재주놀이 공연 등이 포함되었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어느 한 집안의 도문연은 마을 또는 인근 사람들에게 ‘가서 구경할 가치가 충분한 스펙타클한 행사 내지 공연’이었다. 위백규는 자신의 도문연에 적어도 삼현수 출연과 광대의 공연 정도는 포함할 생각이었다.

여기에 드는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조선말기 지규식(池圭植)이 쓴 『하재일기』에 ‘석촌 김 교관이 도문연에 쓸 돈 1,500냥의 빚을 얻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있다. 위백규의 아버지도 ‘도문연에 쓸 도구들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빛으로 빛은 빛나는 잔치’이기도 했던 듯하다.

잔치 주인공, ‘행복한 떠돌이 되다’

도문연은 개인이나 가문에 큰 의미가 있는 잔치여서 신중하게 날짜를 정했다. 잔치 이름이 도문연-집에 도착하는 날 열리는 잔치였으므로 잔치 주인공인 합격자도 마음대로 집에 도착해서도 안 되었다.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위백규는 덕산-여산-금산사-입암 등을 거쳐 고향으로 갈 노정을 언급하면서 ‘여산 아래쪽부터는 (내가 가는)날짜를 잘 헤아

려서 집에 도착할 날을 정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그의 아버지도 잔치 날짜와 관련하여 아들에게 타일렀다.

“서울에서 떠난 이래로 한결같이 잘 있겠지? 네가 집에 도착할 날은 3월 19일로 정했다. 일 있는 날을 제외하니 마침 이 날이 쓸만하더구나. 그 날짜가 좀 멀기는 하다가는 어쩔 수 없이 이 날로 했다. 장흥 경내로 들어오면 우선 유치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지사(智寺)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날짜를 잘 헤아려가며 장서(長西), 부평(富平) 등으로 돌고 용계(龍溪)와 부산(夫山)으로 돌아서 오너라. 집에 도착하기 며칠 전 즈음에 성으로 들어와 성주를 뵙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 알성(謁聖)한 후에 날짜를 맞춰 가며 집으로 향하면 될 것이다.”

위문덕은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윤2월 19일에 편지를 썼다. 도문연 날짜를 3월 19일로 정했다고 알렸다. 또 아들이 장흥 경내로 들어온 다음에 돌아다닐 지역도 명시하였다. 유치로 가서 친구를 만나고 가지사에서 지내고, 장서, 부평, 용계, 부산 등으로 돌아다니라고 일렀다.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주를 뵙고 알성하라고 했다. 알성이란 공자를 뵙는 일인데 향교의 대성전에서 하기도 했다. 도문연 날짜에 집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장흥의 여러 지역을 빙 돌아보라고 했다.

위백규는 11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15일에 예산 덕산에 들러 21일에 나주에 도착했다. 그는 이 편지를 21일 나주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여 일 만에 서울에서 예산을 들러 나주에 도착했다. 그 속도라면 나주에서 장흥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문일을 3월 19일로 잡았으므로 윤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집에 가지 못했다. 3월 19일에 맞춰 집에 도착해야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빨리 왔건만 출지에 떠돌아다닐 신세가 된 것이다. 난처하기는 아버지 위문덕도 마찬가지였다. 윤2월 22일에 쓴 편지에서는 아들의 여정 속도가 빠른

데 대해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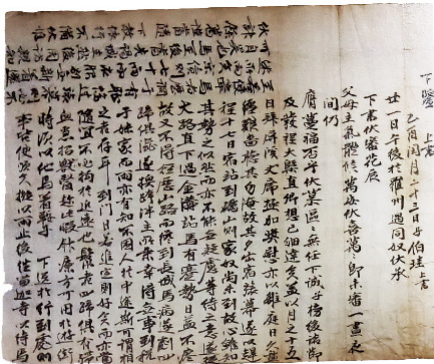
“애초에 당연히 네가 그믐쯤에야 장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종놈을 보내 그저께 여산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빨리 도착했다니 의외로구나. 도문잔치에 쓸 것들은 마치 다 쓸어 없애버린 듯하기가 매우 심해서 도문할 날짜를 오는 3월 19일로 정했다. 일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보니 마땅하고 좋은 날이 없어 부득이 이렇게 했다. 동산이가 갖고 간 편지에 모두 말했으니 도문하기 전 이리저리 다니는 방도는 네가 마땅히 알아서 해라.”

위문택은 윤2월 말쯤에야 아들이 장흥 경계에 들어오리라 예상했고 종을 시켜 20일에 여산에서 기다리게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아들이 일찍 여산에 도착했다. 그때 위백규는 집에서 보낸 종이 도착하지 않아 내심 걱정했다. 아버지 예상과 아들의 여정 속도가 어긋났던 것이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 없는 날도 제외해야 하고 도문잔치에 쓸 것들이 거의 없어 새로 장만해야 했다. 그에 맞춘 날짜가 3월 19일이다.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알아서 다니다가 집에 오라.’고 통보했다. 위백규는 그날까지 집에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여기저기 빙빙 돌아다녀야 할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건 ‘행복한 떠돌이’가 아니었을까.

도문 잔치는 좋은 날을 가려 정한다. 합격자가 도착하는 그날이 잔칫날이 아니다. 합격자는 오히려 잔칫날에 맞춰 여정을 별도로 조정해야 했다.

소과 생원시든 대과 문과이든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시험 응시자는 많았고 합격자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합격은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 면역(免役)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서

올로 올라온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감격은 서울 수험생보다 몇 배나 더했을 터이다. 수험생활이라는 고생 끝에 찾아온 합격은 달디단 꿀보다 더 달았을 터이다. 고향 근처에서 한 달 정도 집 주위를 배회하는 ‘떠도는 생활’의 쓴맛쯤이야 이 꿀맛으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었으리라.



十一日午後 於羅州遇同奴 伏承/
 下書 伏審花辰/ 父母主氣體 候萬安 伏喜萬萬 卽未審 一晝 夜間 仍/ 膺蔓福否乎 伏慕區 區 無任下誠 子 榜後諸節/ 及 發程大概 直卿想已細達矣 盖 以月之十五/ 日 拜屏溪丈席 極 加獎慰 亦以離庭日久 盤/ 纏艱 喬 聽其勿淹 故其夕出宿旅幕 遂以趕/ 程 十七日宿站 到礪山 則家奴尚未到 故心雖知/ 其勢 之似然 而亦不能無疑慮 等待 之意 遂從/ 大路直下 過金溝站 馬有蹇勢 日益不廖/ 故又不得 徑歷山路 而纔到長城 馬病遂

劇 四/ 蹄俱盡 遂換跨泮主所乘 幸得無事到稅/
 于妹家 而雨亦有知不困人於中途 斯可謂相/ 之者存耳 到門日 若進定則好矣 而亦當/ 隨宜 不必拘於 近遠也 蠶者四蹄 俱有滯/ 血 急招獸醫 趨此暇針療 方可用於遊街/
 時 須以他馬着鞍子 下送於行到處 則/ 事皆便順矣 擬以雨止後 往留迦寺 以待馬/ 至 若使牽馬者 歷 調于有耻場邊旅幕 則必不/ 迷所向矣 京價則七十兩 而衣服別無新着 還/ 可自笑也 馬至後 當先謁城 主 然後周訪親知/ 伏計 餘萬 謹當隨下 敬依行 不備伏惟/
 下鑑 上書/ 乙酉閏月二十三日 子伯珪 上書/

그림 6 1765년 윤2월 과거 합격 후 뉘백규가 아버지 위문덕에게 올린 편지. 아버지의 요청에 부응하여 유지, 가자사 등을 들리고 성주와 친지들을 찾아뵙겠다고 하였다.
 출처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2)』

참고문헌

권수용 편(2020),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2), 한국학호남진흥원.
 『방촌유물전시관 기증.기탁품 도록』
 권수용 편역(2020), 『(장흥 존재고택 가전 간찰로 보는) 방촌 유학자의 교유』, 부크크.
 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9),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한국학중앙연구원(2015), 『試券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김덕수(2016), 『조선시대 放榜과 유가에 관한 일고』, 『고문서연구』49.
 윤선영(2020),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67.

시폐를 직설하다

“거꾸로 나오려던 아기도 돈만 주면 순산합니다.”

정조의 기다림, 긴 글 짧은 만남.

1796년 3월 7일. 정조는 아침 일찍 밀봉되어 올라온 상소 하나를 이제 막 열어 보았다. 두루마리가 제법 묵직한 것으로 보아 꽤 긴 글임을 알 수 있었다. 정조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어제 처음으로 만나 본 70대 노인은 70대답지 않았다. 묻는 말에 또렷이 응대하는 걸 보니 50대 장년 모습이였다. 겸손했지만 70년을 산 사람에게만 있을 법한 노련함과 당당함이 뽐어져 나왔다. 먼 시골 장흥에서 살아온 노인으로서 임금 앞에서 기가 죽을 법도 하건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

이 사람을 장흥으로부터 불러 올려 만나기까지에는 무려 석 달이나 걸렸다. 전라 감사에게 그를 찾아 한양으로 올려 보내라고 명을 내렸지만 왜 그리 꾸물거리는지, 정조는 2월 내내 독촉했다. 2년 전 호남의 사정을 살피러갔다 돌아온 서영보(徐榮輔)는 그를 “문학이 뛰어나고 경전에도 두루 통달했으며, 학식이 매우 해박”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관료들의 잘못이고 애석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 그가 저술했다는 『환영지』는 얼마나 치밀하고 해박했는가. 정조는 이미 마음 속으로 탄복했었다. 직접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했다. 그를 만난 정조는 평소 마음 속에 담고 있던 말을 소상히 글로 써서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하룻밤 사이에 꽤나 긴 상소문을 써서 밀봉해 올렸던 것이다. 긴 글 속에 그는 어떤 말을 하였을까. 궁금증과 기대감을 품고 정조는 상소를 읽었다.

1796년 1월 말 무렵, 위백규는 전라 감사로부터 빨리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을 뵈라는 연락을 받았다. 뜻밖의 소식이었다. 70 평생 장흥에서

살았고, 벼슬 한번 해보지 않았다. 자신의 출신에 대해 ‘삼벽(三僻)’이라고도 했었다. ‘지리상, 가문상, 인맥상 궁벽’하다는 말이다. 장흥이라는 곳이 궁벽하고, 집안도 한미하며, 아는 사람이라고는 몇 사람에게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고관이나 위세가 대단한 집안 사람들도 아니라는 말이다. 일 년 전 『환영지』를 올려보내라는 명을 받고 올려 보낸 일은 있었지만, 위백규는 임금이 직접 자신을 부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보자고 한 것이다. 선공감부봉사(繕工監副奉事)라는 벼슬까지 내렸다.

위백규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끝자락을 거두지 않은 데다 나이는 70대이고, 아프기까지 했다. ‘날씨가 풀리는 상황을 보아 임금을 뵈러 가겠다.’고 했건만, 임금이 또 재촉한 모양이었다. 2월 16일에 허둥지둥 서둘러 길을 떠나 보름 여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과거 공부에 매진하던 시절에 살았지만 30대 후반에 떠난 후 몇 십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한양땅이었다. 3월 3일에 도착하여 옛날을 회상할 겨를도 없이 3월 6일, 희정당(熙政堂)에서 정조를 뵈었다. 황송하게도 임금은 『환영지』를 보고 ‘박식함을 알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나라 다스리는 일에 관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써서 올리라.’고 하면서 붓과 종이까지 하사했다.

명을 받고 물러나온 위백규는 마음과 몸이 바빠졌다. 상소를 써야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14년 전 계묘년에 두서 없이 써 냈던 초고를 집안 조카가 갖고 있었다. 글자 수를 센 다음, 13명 서리들이 글자를 나누어 베꼈다. 상소문은 거의 7800자에 가까운 분량이었다. 한 사람당 600자 정도를 베껴 쓴 셈이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었으니 틀려서도 안 되고 반듯하게 써야 했다. 위백규는 밤새 이 일을 지켜보았다. 70대 노인에게는 매우 버겁고 힘든 일이었다. 6일 오후에 시작하여 밤샘하고 7일 아침에 완성하여 임금에게 올릴 수 있었다.

폐단을 직설하다

위백규가 이 때 올린 글은 만언봉사(萬言封事)이다. 만언이란 글자 수가 많기가 거의 만 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봉사(封事)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 곧 상소문의 일종이다. 봉(封)은 밀봉(密封)함을 말한다. 왕에게 올리는 글은 승정원 등을 거쳐 왕에게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의 글은 밀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 그래서 봉사는 임금이 맨 첫 독자가 된다. 위백규는 상소문을 작성한 다음 단단히 밀봉해서 아침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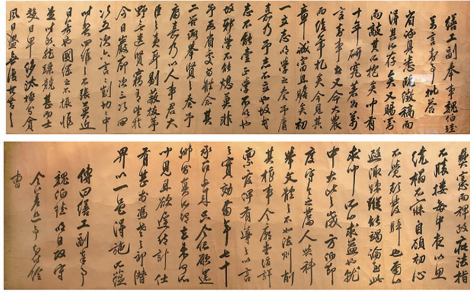
상소에서 그는 6가지에 관해 말했다. 임금이 뜻 곧 마음가짐을 잘 세우기, 보필하는 신하를 잘 뽑아 쓰기, 엄치를 강조하여 사회 기강을 잘 잡기, 선비들의 풍속을 바로잡아 출세 위한 심한 경쟁 억제하기, 탐욕스런 행위를 단속하고 사치를 금지하기, 옛 제도를 따르며 좋지 않은 정사나 제도 고치기 등이다.

첫째, 임금이 뜻을 세울 때는 1등으로 치는 요순을 모범으로 해야하며 2,3등에 속하는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성의(誠意)’, ‘정심(正心)’을 강조했다. 임금의 지향이 바르게 되어야 나라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물을 등용할 때에는 덕행과 역량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모든 관직에 모두 다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어떤 자리나 직책에 부합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며,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굳이 그 자리에 사



그림 1 『존재집』에 실린 만언봉사(부분)



繕工副奉事魏伯珪萬言封事批答

省疏具悉。既徵稿而得其所存矣。又賜對而敲其所抱矣。聞有十年研究。著爲萬言封事者。又命大農而給筆札矣。今見其章。誠富且瞻矣。初一立志明學之奏。予庸嘉乃。予志不立也。故民志不能一。正學不明也。故邪學不能熄。莫不予反省處。當體念。其二簡弼學賢之奏。予庸嘉乃。以人事君。大臣之責耳。剔蔽拔茅。野無遺賢。竊有望於今日巖廊。次三次四次五次六。言言剴切。切中時弊。四維之不張。莫近日若也。國綱之不振。惟是時卽。然躁競甚而土趨日卑。侈汰極則貪風日盛。無復古昔之彝憲。而裨政疵法。指不勝撻。每中夜以思。繞榻不寐。自顧初心。不覺顏發皴也。爾以遐蹶踈蹤。能竭論至此。求聞所以求益也。就中大比之歲。方伯節度守令之薦人與科舉文體之不如法則削其榜事。令廟堂消詳稟覆。俾有導之以言之實效。爾年七十。承召上來。只令依願還鄉。則真所謂去來何所聞見。且欲遲待計仕。有甚於馮老之郎潛。昇以一邑。得施所繇。

그림 2 위백규가 올린 만언봉사에 대해 정조가 내린 비답, 장흥방촌박물문소장, 이미지출처 최순권, 『방촌유물전시관 기증·기탁품도록』(위백규를 ‘이(爾)’ 즉 ‘너’라고 부르고, ‘답왈(答曰)’이라는 표현이 없다. 당시 위백규의 벼슬 품계가 2품 이하였기 때문이다.)

람을 채워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재상까지 올라가고, 어떤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우던 당시 관료 임명 관례를 감안하면, 획기적인 발상이다.

세 번째는 사회 기강에 관한 것으로 예의와 염치를 강조했다. 평민이나 하인들이 사대부의 예를 행하고, 장사꾼들이 궁과 관청의 복식이나 음식을 그대로 따라 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이는 곧 신분에 따른 예가 있는데 그것들의 경계가 희미해져 사회 기강이 무너졌다고 진단한 것으로, 신분에 맞는 예의를 준수하는 풍속을 만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출세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뇌물, 청탁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는 특히 관리들의 탐욕과 사치를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는

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돈을 제일로 치는 사회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임금에게 보여주었다.

여섯 번째는 법 시행과 제도 개선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이 조선후기 상황에 맞게 개선되어 『수교집록』 『대전통편』 등이 마련되었지만 완전히 무시되는 관례, 과거·군사·공안(貢案) 등 백성의 일상과 직결되는 제도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항목은 당시 사회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들이었다. 이 상소를 보고 정조는 비답(批答)을 즉시 내렸다. 비답이란 신하가 올린 글에 대해 임금이 응답하거나 명을 내리는 글이다. 아침에 올라온 7800여 자의 긴 상소를 보고 저녁 즈음에 응답을 했던 것이다. 비답에는 특히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모두 절실하고, 현재의 폐단을 적확하게 짚어냈다.’는 칭찬과 탄복을 담았다.

만언(萬言)만큼 일 나고 말 많았던 만언봉사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곧게 말할 경우, 지적 대상이 되는 이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위백규의 글은 금세 궁 밖으로 퍼져 나갔다. 실제 정조는 이 글을 신하들에게 내려 보게 했던 듯하다. 며칠 후 정조는 그 때 우의정이었던 윤시동(尹蓍東)에게 이 글을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고, 윤시동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다면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 상소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위광익(魏光翼)은 위백규 집안 사람이었는데 당시 한양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만언(萬言)의 상소는 시폐(時弊)를 적확하게 말했는데도, 그 사이 여

러 사람들의 말과 비방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태학에서는 권당을 했고, 사학에서는 통문도 발송했습니다. 중신들도 상소를 배척하였으니, 직언이란 예부터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이 상소를 듣고 가장 화를 낸 이들은 성균관 유생들이었다. 상소에 ‘태학 유생들이 일년 내내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하루 종일 의리에 대해 논의하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며, 폐지어 떠들기나 하고 음식만 허비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성균관 유생들은 자신들을 비난했다고 하면서 저녁 식당에 불참했다. 『일성록』에 ‘3월 19일에 태학 유생들이 권당(捲堂)했다.’고 했는데, 권당이란 이른바 단체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이다. 위백규가 올린 상소 내용이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생각하여 성균관 유생들은 저녁 식사 때에 단체적으로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성균관 유생들의 단체 행동 자체가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이나 의미가 꽤 컸던 때였으므로, 이는 떠들썩한 사건이 되었다.

게다가 상소에 쓴 표현이 불경(不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위백규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폐단을 언급하면서 ‘아기가 거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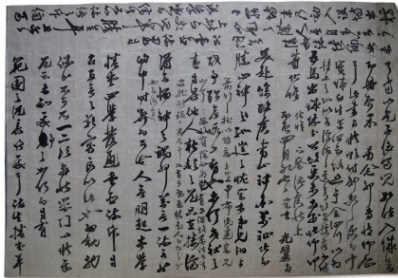


그림 3 위광익(魏光翼)이 1796년 4월 7일에 위백규에게 쓴 편지. 위백규의 만언본사 내용에 대해 당시 성균관 유생 및 대신들이 배척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이미지출처 권수용 엮음, 『장흥위씨 존재고택』, 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2)

로 나올 때에도 돈만 주면 순산한다.’는 표현을 썼다. 문제가 된 표현은 ‘도산(倒産)-아기가 거꾸로 나오는 일’이었다. 당시 판중추부사였던 윤숙(尹塾)은 백성들이나 쓰는 저속한 말을 감히 임금 앞에서 썼다고 하면서 선비로서의 체모를 잃었다고 했다. 또 위백규에 대해 ‘잡술(雜術)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라고 비방했다. 위백규의 만언봉사는 세 자료에 실려 있는데, 『존재집』에는 전문(全文)이 실렸고, 『정조실록』에는 요약적으로 서술되었다. 『일성록』은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실었지만 ‘도산’을 언급한 내용만 빠져 있다. ‘도산’이 출산과 관련된 말이지만 임금 앞에서 쓰면 불경한 표현이었으므로 삭제하였던 듯하다. 헌납이었던 한흥유(韓興裕)도 가세하여 ‘남쪽에서 온 선비의 말은 세상을 속이는 것인데도 분에 넘치게 목민관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조가 위백규를 옥과현감으로 임명한 일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다. 위백규가 한양을 떠나자마자 상소 내용이 급속히 퍼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소신을 갖고 상소했지만 위광익이 전해준 한양 분위기에 위백규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듯하다. 옥과현감으로 부임하여 목민관으로서 일을 한 지 40여 일이 지난 즈음에 사직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상소로 인해 성균관 유생들이 단체 시위 행동을 하고, 대신들이 상소까지 해가면 거론했다는 사실 때문에 편치 않으니 사직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쓴 상소문의 표현이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바닷가에서나 살던 늙은 이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임금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면서 ‘자신의 말이 주변 사람들을 거슬리는지 생각도 않고 비루하고 저속한 말도 가리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정조의 굳은 신뢰와 지지, 견고해지는 만언봉사 의미

유생들의 단체 행동, 대신들의 비방에도 위백규에 대한 정조의 신뢰는 대단했던 듯하다. 옥과현감에 임명하여 평소 위백규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대와 역량을 펼쳐 보일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는 ‘성균관에서 초야의 선비 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은근히 유생을 질책했다. 대신들이 위백규를 비난했을 때에는 ‘마치 위백규가 망발이 난 것처럼 공격하여 오히려 초야에 있는 선비들의 진솔한 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불평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초계문신제도를 신설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방에 숨겨져 있는 경륜있는 이들을 발탁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위백규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서영보가 장흥에 가 위백규에 대해 직접 듣고서 천거했고, 정조는 이에 부응하여 위백규의 자질과 역량을 인정했던 것이다.

만언봉사, 긴 만큼 긴 시간의 경륜과 사유를 담다.

만언봉사는 그 길이가 길고 분량이 많은 만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위백규는 거의 10여 년 동안 고심하여 완성했다고 한다. 그는 30대 후반 이후 과거 시험에 더 이상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한양에서 장흥으로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지어 일반 백성들의 농촌 생활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한편으로는 선비답게 당대 사회에 있던 다양한 폐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정현신보(政絃新譜)』남기기도 했다.

그의 만언봉사는 70년 동안 장흥이라는 향촌 생활 경험, 현실에 밀착

한 생활, 백성과 함께 부대끼고 농사일을 몸소 한 일상 경험으로부터 얻은 체험과 현실 감각이 스며든 글이다. 여기에 60여 년간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었던 독서 경륜의 광활함, 사유의 깊이감도 담아냈다.

위백규가 만언봉사에서 보여준 조선후기 사람들의 삶, 세태, 사회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그의 만언봉사는 현대에도 여전히 가치있는 삶의 나침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권수용(2020),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기초자료해제집2), 한국학호남진흥원.
김덕진(2014),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27, 한국실학회.
노인환(2015),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47, 한국고문서학회.
박학래(2018), 「존재 위백규의 교육개혁론과 그 도덕교육적 함의」, 『동양고전연구』72, 동양고전학회.
이강욱(2020), 「조선후기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한 국왕의 판부 방식」, 『고문서연구』56, 한국고문서학회.
최순권(2010), 『『방촌유물전시관 기증·기탁품도록』, 장흥군.

실학의 마음을 품은 책, 『환영지(寰瀛誌)』

‘모두·다·함께’ 바다의 자라로 성장하기를

<구구주도(九九州圖)>, 세계에 대해 질문하게 하다

지리책은 왜 읽고 보는 것일까. 지리책은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담는다. 한 지역의 상대적 위치, 지형이나 기후, 산물(産物) 등의 내용이 있다. 지리책은 다른 책들과도 조금 다르다. 이미지가 있다. 그 지역이 어디쯤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산물(産物), 도로 모양, 산과 물줄기, 건물 위치와 모양 등을 그려 놓은 지리책이라면 더 좋다. 지리책은 내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쯤 있는지 가능하게 해주고, ‘그곳’의 길은 어떻게 생겼는지, 산은 어디쯤 있고, 어떤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곳’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세상에 ‘그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이곳’과 ‘그곳’이 얼마나 닮고 다른지, ‘그곳’을 이해하게 해준다. 지리책이 독자를 유혹하는 강력한 매력이다.

위백규가 지리책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그가 『환영지』를 만들게 한 것은 <구구주도(九九州圖)>였다. 이 지도를 보면서 그는 ‘정말 세상이 이럴까, 조선 밖의 땅덩어리는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 지도 저 끝 세상은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계속 던졌다. 직접 보지 않아 믿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좁은 견문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일도 우스웠다.

『장자』 <秋水>를 보면 개구리와 자라가 나온다. 개구리는 우물 속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세계가 훌륭하다고 여겨 넓디 넓은 바다에 사는 자라를 초대했다. 자라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우물이 좁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위백규는 자신이 개구리처럼 되어 ‘드넓은 바다

세상을 아는 자라의 비웃음을 사는 건 아닐까'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 동쪽 끄트머리, 바닷가 궁벽한 곳에 항상 벽지에 사는 사람, 크고 큰 천지에 비해 바다의 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조선 밖 세계의 모습을 그린 구구주도를 보고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일은 스스로 비웃음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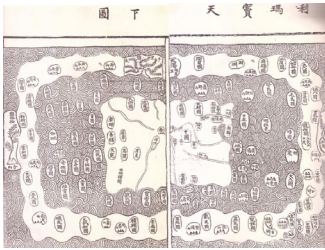


그림 1 『환영지』에 실린 마테오 리치의 <천하도>. 위백규가 서문에서 말한 <구구주도>라고 한다. 출처 『존재전서』하



그림 2 목판본 『환영지』. 정서본에 있는 <천하도>가 목판본에는 없다. '이 사이에 있어야 할 구구주도가 빠진 듯하다.'는 주가 달려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

조선 땅끝 장흥에서 세계를 주유(周遊)하다.

<구구주도>를 베껴 그린 후 그 뒤에다 중국 13성(省)지도, 조선 8도 지도, 고금의 기록들을 덧붙였다. 『환영지』 1차 원고였던 듯하다. 그의 나이가 33세인 1758년이였다. 『환영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즉시 수정하거나 정서(正書)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과거공부를 위해 한양에 머물던 시간도 많았기 때문이리라. 거의 10여 년이 지난 1770년에서야 서문을 썼다. 출판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61세 때인 1787년이였다. 그동안 작성해두었던 원고를 하성도(河聖圖)와 함께 살피면서 수정했다. 1차 초고가 만들어진 지 거의 30여 년이 지났으니 그 사이 내용 변화도



그림 3 (좌) 『환영지』의 <조선팔도총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도인 우산도가 조선방임을 보여준다. (우) <조선팔도총도>의 목판 이미지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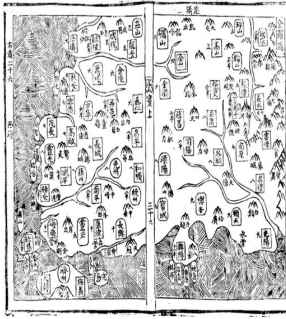


그림 4 (좌) 『환영지』 <전라도>지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우) <전라도> 지도의 목판 이미지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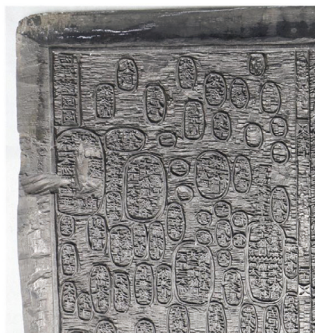


그림 5 (좌) 『환영지』 안에 있는 <서양제국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우) <서양제국도>의 목판 부분 이미지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

있었다. 초기에는 이미지가 50개 정도였는데 69개까지 늘어났고 다시 66개로 정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번거로운 것을 빼고, 덧붙여야 할 정보나 지식이 증가했던 것이다. 하성도와 내용 수정을 마치고 목판 10개를 새겼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그래도 10장의 목판과 정본(正本), 초고본이 있었다.

『환영지』에는 지도가 많다. 우선 마테오 리치가 그렸다는 <천하도>가 있다. 위백규는 <구구주도>를 보고 웃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천하도>였던 듯하다. 한반도 조선을 나타낸 지도(朝鮮八道總圖), 중국 땅을 보여주는 지도(朝鮮八道道),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보여준 지도(西洋諸國圖)뿐 아니라 한양(漢陽圖)부터 제주도(耽羅圖)까지 각각 한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다. 요동(遼東圖)과 일본의 지도도 있다. 조선부터 요동과 만주 별판, 중국 땅을 거쳐 서양까지 뻗어가고,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아울렀다. 조선, 중국의 땅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시 각각의 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속하는 지명을 보여준다. 장흥에서도 전 세계를 들여다보며, 세상의 넓음과 다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환영지』, 단순한 지리지를 넘어서다

『환영지』는 지도만 보여주지 않는다. 상권의 구천팔지도(九天八地圖)부터 하권의 역대연표도(歷代年表圖)까지 모두 64개의 이미지와 표가 들어 있다. 하늘의 별자리 그림, 역대 관직 및 조선의 관직, 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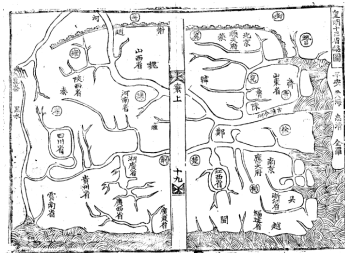


그림 6 『환영지』의 <황명십삼성총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이름, 제왕들의 궁전 그림, 중국과 조선의 물산 그림, 군대의 진법 그림(兵陣圖), 중국 황제들의 능호, 역대 연표와 연호, 음악과 관련한 내용(九變樂成圖), 심지어는 인간의 신체 구성에 관한 내용(人身五行圖), 오행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人物分配五行圖), 24절기 등도 표로 보여준다. 지도도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지구 위에 있는 대륙들과 그에 속하는 나라들을 거의 다 보여준다. 하늘, 땅의 모습과 같은 천문(天文)·지문(地文)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여러 제도나 문물 곧 인문(人文)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천·지·인 삼재(三才)에 관한 지식 정보의 종합서로서 단순한 지리지가 아니다. 『환영지』에 삼재도(三才合應圖)를 그려 넣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지리지에는 없고 『환영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며 개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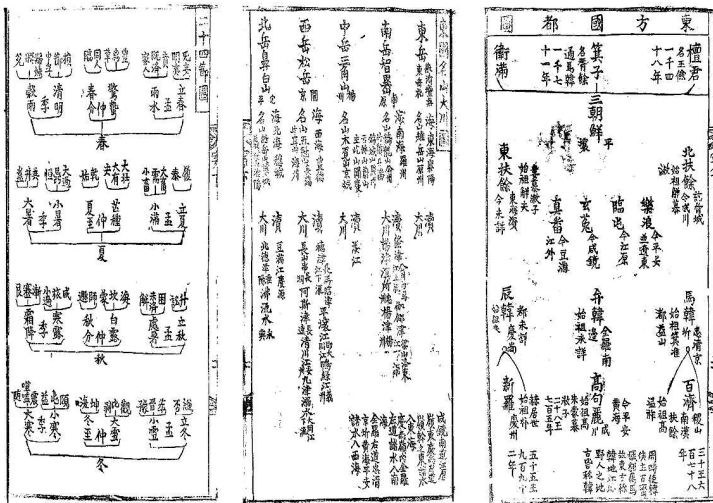


그림 7 (좌) 『환영지』의 <24절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앙) 『환영지』의 <동국명산대전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우) 『환영지』의 <동방국도도>. 단군부터 시작하는 우리 역사를 보여준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성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다

위백규가 비록 간행하지는 못했지만 『환영지』 명성은 인근에 퍼진 듯하다. 1794년 당시 해일이 일어나 호남 지역 피해가 컸다. 정조는 서영보(徐榮輔)를 보내 강진을 비롯한 여섯 지역의 피해를 조사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게 했다. 서영보는 각 지역을 돌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지역 인재들에 대해 탐문도 했다. 조정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 ‘장흥의 진사 위백규는 학식이 해박하다.’고 하면서 천거했었다. 위백규의 행장에 의하면 서영보가 장흥 지역에 와서 각종 정보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위백규의 명성을 들었고, 그가 저술한 글들을 열람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서영보의 보고서에는 위백규가 쓴 『경서차의』만 언급되었지만, 아마 구두 보고를 통해 『환영지』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조는 즉시 『환영지』를 올려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정조는 호학군 주답게 매우 다양한 책들을 두루 읽고, 규장각을 지어 서적들을 정리, 보관했다. 초계문신제도를 만들어 규장각 전속 문인들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책을 만들고 간행했다. 정조의 독서 범위는 경서에 한정되지 않았다. 세간에 유명한 책들도 직접 보고 평가했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가 사대부들 사이에 자주 언급되자, 직접 읽고서는 『열하일기』의 문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백성들의 저술과 독서물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군주였다. 아마 ‘위백규가 해박하다.’는 서영보의 말을 듣고, 『환영지』가 어떤 책인지 직접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터이다.

워낙 급하게 떨어진 어명이어서 전라감사가 위백규에게 어명을 전하자 급히 책을 써서 올려보냈다.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 족손 위영복(魏榮馥)은 이렇게 말했다.

정조께서 맨 먼저 이 환영지를 뽑아 지목하여 한양으로 올려보내라고 했

고, 감사가 서서 재촉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베껴 쓸 겨를 조차 없었다. 올려보내고 나니 미완성된 초고만 집안에 남아 있게 되어 보관하였다. 집안 사람들과 문도들이 모두 다 한스러워했다. 내가 노곡(蘆谷)에 갔을 때 사문 신앙여(申仰汝)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책에 관해 말하게 되었는데, 양여는 자신이 이 책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가서 살펴보니 번거로운 것을 잘라내고 긴요한 것들만 취했으니 정본을 베껴 쓴 것이었다. 이 책이 문인 집안에서 거의 7,80년 동안 잘 보관되었다가 내가 다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魏榮馥 <寰瀛誌跋> 『茶品遺稿』권3)

한양으로 올려 보낸 것은 1787년 위백규가 목판으로 간행하려고 초고를 퇴고, 수정하여 정서한 정본(正本)이었을 것이다. 임금이 보는 어람용이니 초고 상태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지체할 수 없어 집안 보관용 정본을 다시 베껴 써서 보낼 여유는 없었으리라. 결국 미완성 상태인 초고만 집안에 남게 되었다. 1770년에 1차로 완성했지만 위백규나 위씨 집안에서는 이것을 완성본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듯하다. 목판출간을 위해 정리한 1787년 원고를 완성본으로 여겼다.

이 정본을 다시 보게 된 것은 7,80여 년이 지난 뒤였다. 신앙여(申仰汝) 집에 정본이 잘 보관되어 있어 족손인 위영복이 볼 수 있었다. 신앙여는 신두선(申斗善)으로 구한말 학부대신을 지냈던 신기선(申箕善)의 형이다. 충청도에 살았고 임헌회(任憲晦)를 사사했다. 유충교는 충청도 선비 중 마음에 드는 이로 지목하기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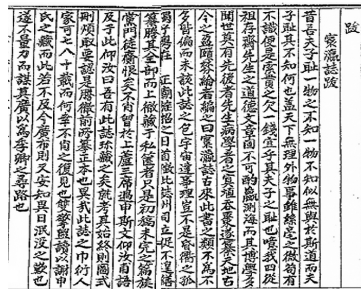


그림 8 위영복이 쓴 <한영지跋>. 정조에게 바친 이후 『한영지』 정본(正本)을 찾아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출처 한국역대문집DB

다. 위영복은 『환영지』정본을 충청도에서 만났다. 이를 보면 『환영지』는 그 동안 필사 상태로 유통되면서 널리 퍼진 듯하다. 장흥에서 생산된 『환영지』가 멀리 충청도까지 퍼졌고, 관심 있는 이들이 베껴둠으로써 개인 집안 소장서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위영복이 남의 집안에서 잘 보관되어 있는 자기 집안 선조의 전적을 보았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놀람과 반가움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을 터이다. 마침내 『환영지』는 1882년에 목판본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위백규는 호남의 실학자로 일컬어진다. 그는 장흥에 살면서 농사와 독서를 병행했다. 시가 <농가구장>이 농부로 산 결과물이라면, 『환영지』는 독서와 연구의 결과물이다. 농부와 독서인. 위백규가 명실상부한 실학자로 일컬어지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이 둘을 환상적으로 잘 융화시킨 결과이리라.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개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함께 모두’ 바다의 자라가 되기를 바랐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학자적 마음이 아닐까.

참고문헌

- 『다암유고』, 한국역대문집총서DB
『존재전서』하, 경인문화사, 1974.
『존재집』, 한국고전종합DB
『환영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디지털라이브, <http://yoksa.aks.ac.kr>
김봉곤(2016), 『환영지』를 통해 본 존재 위백규의 역사지리인식, 『역사와실학』 61, 역사실학회.
고석규(2020), ‘세계를 담은 존재 위백규의 『환영지(寰瀛誌)』’, <호남학산책>, 한국학호남진흥원, <https://www.hiks.or.kr/HonamHeritage/2/read/703>.
배우성(2014), 『조선과 중화』, 돌베개.

내 일같이, 우리 일처럼 조선시대 소지(所志)-한 목소리로 함께

정성이 부르자 도움이 오다

한 사냥꾼이 꿩을 산 채로 잡아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예닐곱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오더니 대뜸 “그 꿩을 제게 주실래요?. 우리 할머니께 꿩요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라고 한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당돌하게 꿩을 달라고 하자 사냥꾼은

“값을 치러야 할 텐데...”

그러자 아이는

“닭과 바꾸면 될까요?”

“음, 그건 너무 작아서 싼 편이구나”

“그러면 소와 바꾸면 될까요?”

사냥꾼은 아이의 말을 듣고는 기특하게 여겨 자기가 잡은 꿩을 그냥 주었다.

남평 도래마을 효자 홍현주(洪顯周)의 어릴 때 사연이다. 할머니가 설사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자 꿩요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다. 어린 아이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냥꾼은 기특했던 모양이다. 아이는 꿩을 소와 바꾸자로 제안했다. 조선시대 소는 매우 가치가 높은 재산이었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는 동물이었다. 소를 함부로 도살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아이는 선뜻 소를 내놓겠다고 하였다. 그 만큼 할머니를 위하는 아이의 마음은 크고 간절했고, 사냥꾼도 그 마음을 알아챘다.

홍현주가 할머니를 위해 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앓아 누

워 있으니 몸을 제대로 씻지 못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이도 생겼다. 그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기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할머니 머리카락에 갖다 대었다. 할머니 머리카락에 붙은 이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옮겨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이의 발상치고는 상당히 기상천외하다. 할머니를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리저리 궁리하는 모습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팠을 때다. 약을 사러 집에서 좀 멀리 있는 곳으로 갔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집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한밤이 되어 컴컴했다. 앞이 잘 안 보였다. 게다가 폭우까지 내렸다. 길 찾기도 쉽지 않은데 어렵게 사온 약까지 다 젖을 판이었다. 그런데 그 때 지나가던 어떤 이가 묻지도 않고 유의(油衣)를 선택 내주었다. 유의는 종이에 기름을 먹여 물에 젖지 않게 하여 그것으로 만든 일종의 비옷이다. 종이가 싸지 않던 시대에, 그것도 기름 먹인 종이 비옷이라면 가격이 꽤 비쌌을 터이다. 그런데 처음 보는 젊은이에게 그냥 내주었다. 어머니에게 드릴 약이 젖을세라 품에 안고, 훗 늦게 집에 도착하여 약을 제때 드리지 못할까하는 젊은이의 조바심을 봤던 것일까.

어머니가 아주 독한 설사병으로 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 생선을 먹고 싶어하자, 한 겨울에 냇가로 나가 쌓인 눈을 헤치고 얼음을 깨면서 물고기를 잡아다 요리해서 드리기도 했다. 집 근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기도 했는데, 생선이 있다면 값을 묻지 않고 무조건 샀다. 그의 사정을 눈치챈 생선장수는 싱싱한 생선이 있을 때면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꼭 흥현주에게 먼저 팔았다.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는 그의 효심과 정성에 감동했던 것은 아닐까.

효심에서 우애심까지

1794년(정조 18) 정명흠(鄭明欽)은 38명과 함께 홍현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리하여 남평현감에게 소지(所志)를 올렸다. 39명의 연명(聯名)이 달린 소지였다. 소지란 조선시대 주로 일반백성들이 관청에 제출했던 글이다.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 등 민원(民願)에 관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정명흠은 홍현주의 효심 깊은 행적을 묻어두기에는 안타깝다고 여겨 인근의 여러 사람과 함께 홍현주를 ‘효자’로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 마을 풍산홍씨(豐山洪氏)는 호남에서 명성과 덕망이 있는 집안입니다. 멀리 위로는 직학공 홍지경(洪之慶)이 있고, 성천부사를 지낸 홍수(洪樹)가 있습니다. 지금 그 후손인 사인 홍현주(洪顯周)는 형조참의인 홍봉주(洪鳳周)의 동생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효도하고 우애있는 행동을 합니다. 집안에 아픈 어른의 병시중을 들 때 변을 맛보는 일도 하여 하늘도 감격하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피눈물을 흘리며 상(喪)을 치르면서 진심을 다하고 후하게 하였습니다. 초흔(髻鬣)의 나이일 때부터 부모나 집안 어른을 사랑하는 정성이 컸습니다...(중략)...어머니가 병들자 말년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허리띠도 풀지 않고 살폈습니다. 킁킁한 밤중에 흑설사라도 하면 손을 내밀어 받아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이면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하고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진심으로 슬퍼했고, 염습이나 장례를 치르는 일도 예법에 딱 맞추면서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이 10리 거리에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날마다 성묘하였습니다.

우선 홍현주 집안 연원이 오래되고 명망있는 집안임을 밝혔다. 풍산홍씨는 고려 때 국학직학을 지낸 홍지경이 풍산에 정착하면서 홍씨의

본관으로 삼았다. 조선 단종 때 성천부사를 지낸 홍수는 단종 폐위를 반대했고 이로 인해 화를 입게 되자 나주 금안동으로 피했다. 종종 때 홍한의(洪漢義)가 기묘사화를 피해 남평으로 들어오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홍현주는 그들의 후손이다. 효행의 근원이 집안의 덕망에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홍현주의 효행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있었음도 밝혔다. 초흔(髻鬣)이란 이를 막 갈기 시작하는 때이다. 젖니를 갈아 영구치로 바꾸기 시작하는 나이로 7, 8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한다. 그의 효행이 학습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타고난 성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명흠의 소지는 홍현주의 효심이 타고난 것이고 또 그것을 어려서부터 실천했고, 늙을 때까지도 변함없었음을 서술한다.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하여 할머니와 어머니 병 시중을 들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한 일, 똥을 맛보아 가면서 증상을 관찰하고 그에 맞게 약을 적절히 달여 올렸던 일, 상례를 치를 때 예법에 맞게 한 일, 장례가 끝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묘했던 일 등을 썼다. 그의 효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대목이다.

이어서 홍현주의 우애도 보여준다.

막내동생 홍면주(洪冕周)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둘째동생 홍정주(洪鼎周)와 함께 밤낮으로 서로 안고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는다며 매우 걱정했습니다. 한밤중에 이불도 같이 덮고 약도 먹여주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신도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막내동생은 죽었습니다만 효자 홍현주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지금의 유숙포(庾叔褒)구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숙포는 진(晉)나라 사람 유곤(庾袞)이다. 전염병이 확산되어 3명의 형 중 2명이 죽고 유비(庾毗)만 남았다. 유비도 곧 전염병에 걸리자 집



그림 1 1794년(정조 18) 정명흠(鄭明欽) 등 39명이 올린 소지.
 '홍효자의 사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 극히 흠탄'하였다는 남평현감의 소감이 담긴
 제사(題辭)가 쓰여 있다.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안 사람들은 혹시 전염될까 무서워하여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 그러나 유곤은 혼자 남아 간호했고 둘다 살아남았다. 전염병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며, 더 강해지거나 전파 범위가 확대되면 팬데믹으로 발전한다. 전염에 대한 공포는 시공간과 무관하다.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은 더 심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 유비를 살려냈다. 그의 이야기는 형제간의 우애를 말할 때 자주 언급된다. 정명흠은 홍현주를 유곤에 비유하여 우애가 돈독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효심은 물론이고 우애심까지 갖춘 훌륭한 인품과 덕행을 겸비한 인물로 서술했다. 아울러 홍현주에게 생긴 일들은 모두 '정성이 하늘을 감격시킨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홍현주의 정성, 진심이 사람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닿아 신의 마음조차 움직이게 했다는 말이다.

긴 시간의 어려운 일, 그래도 함께 한 일

홍현주에게 일어났던 일들, 믿기 쉽지 않지만 또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다. 홍씨 집안과 정명흠은 홍현주의 효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그의 효행이 마을 안에서만 전해지는 일은 애석했다. 전국적으로 알리고 공적으로 인정 받고 싶었고 그에 합당한 포상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는 유교 윤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했다. 특히 효를 강조했다. 지방의 목민관들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그 지역에서 효행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 조정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 ‘효도, 우애 절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을 연말에 예조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뢴다.’고 명문화했다. 급복(給復)이란 제도도 있었다. 충·효·열에서 남다르고 탁월한 행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집안에 대해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해주는 제도였다. 효행이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되면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주었다. 작계는 쌀이나 옷감 등이 일종의 상으로 내려졌다. 크게는 효행을 표시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문을 세우는 정문(旌門)을 내려 표창하거나, 효행자의 집안에 부과된 부역이나 세금도 면제되었다. 벼슬이 없으면 벼슬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이미 벼슬이 있으면 한 등급씩 오르기도 했다. 하층민이라면 면천(免賤)하여 신분도 상승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혜택이 큰 만큼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전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포상을 청원하는 글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 마을에 가서 조사하기도 하고 향교나 서원 등 그 지역 사람들의 여론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명흠의 이 소지는 바로 ‘마을 사람들, 사람들의 여론’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한번의 여론 표현만으로 효행이 공인되지 못했다. 반복적인 여론 형성과 여론을 담아낸 글을 제출하는 일이 있어야 했다.

홍씨집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했던 듯하다. 정명흠이 1794년에 소지를 올렸고, 1808년에는 기태온과 87명이 연명하여 당시 호남의 암행어사로 온 서유망(徐有望)에게도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나주부터 광주, 순창, 보성, 강진, 해남 등 호남 전 지역에 있는 유림들이 함께 하면서 반드시 정려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망은 ‘취사 선택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재 헤아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하였다. 호남 전역 유림의 여론에 대한 중압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1820년에는 기태검(奇泰儉) 등 35명이 계(啓)를 올렸고, 1821년에는 김기휴(金驥休) 등 53명이 관찰사에게 글을 올렸다. 거의 30년에 걸쳐 호남의 유림들이 힘을 모아 흥현주의 효행에 대한 포상과 정려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홍효자의 일은 일찌감치 들어서 알고 있어 감영에 알려 임금께도 전해지게 하고 싶었지만 때를 놓쳐버렸으니, 관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리는 게 합당할 듯’하다거나 ‘지금 상량(商量) 중에 있다.’ 등이다. 또 남평현감으로부터 관찰사에게까지 글이 올라갔지만 관찰사는 ‘가상한 일이니 살펴서 잘 처리하라.’고 남평현감에게 미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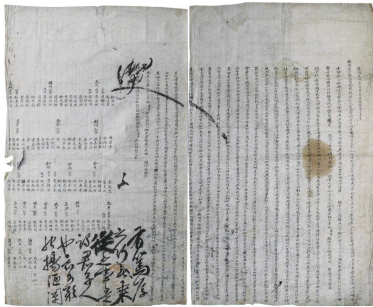


그림 2 1808년 기태온 등 88명이 올린 상서
암행어사였던 서유망에게 올렸다. 나주, 장성을 비롯하여 보성, 순천, 부안, 해남 등 호남 전 지역에 걸쳐 거주한 이들이 참여했다. **사진**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그림 3 1820년에 기태검이 올린 글.
사진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소지를 작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효행의 실제 행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근 사람이나 특히 지역 유림들이 수용하고 인정해야 여론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집안 사람들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한편, 여론을 형성하여 현감에게 전달하고 관찰사를 거쳐 임금에게 이르는 일은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헌주를 위해 호남의 사람들, 유림들은 30년 동안 노력했다. 이 일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가문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면 벼슬길도 열리고 가문의 명예도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효행의 포상이나 정려 요청은 온 마을, 전 지역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그 집안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누군가가 잘 되면 기뻐하는 이도 있고, 내심 시기하는 이도 있는 법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기뻐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다만 기쁨을 함께하고, 기뻐할 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뤄내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일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포만감도 정비례할 듯하다.

참고문헌

사진,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박주(1988) ‘조선시대 효자에 대한 정표정책’, 『한국사상사학』 10(1), 한국사상사학회.

김혁(2004),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장서각』 12,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주(2007), ‘18·19세기 동래부 영양천씨 집안의 효자정려 청원 과정’, 『사학연구』 85, 한국사학회.

권수용 외 6인(2020), 『남평 도래풍산홍씨 석애문중』(호남한국학기초자료해제집3), 한국학호남진흥원.

배고픔을 견뎌야 할까, 자식을 팔아야 할까 과부들의 자매(自賣) 문서

인신 매매가 허용되었다고?

고려 시대 문인 이곡은 시장 구경을 한 소감을 짧막한 글로 남겼다. <시사설(市肆說)>이다. 그는 ‘사람이 매매’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 받았다. 부모가 자식을 팔고, 주인이 종을 팔려고 시장에 늘어놓고 매매하고 있었다. 더 큰 충격은 사람의 값이 개나 돼지 값만도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곡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값’의 현실을 개탄했다.

시아버지를 무척 싫어하고 구박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하던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시장 구경을 하고 나서 한 꾀를 내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시장에 가서 보니 사람을 매매하는 곳도 있다면서, 건장한 남자는 값이 훨씬 더 비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팔자고 제안한다. 다만 튼실한 남자가 값이 더 나가니 아버님을 튼실하게 만들어 몸값을 올려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시아버지를 봉양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몸값이 비싸질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며느리는 어느 새 동네 효부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옛이야기지만 시아버지를 판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을 보면 사람 매매가 실제 있었던 듯하다.

지금은 사람 매매 곧 인신(人身)매매가 범죄행위이다. 조선시대에도 양민이 자신을 파는 자매(自賣)행위를 하거나 자손들을 매매하면 처벌한다는 법규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대명률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구속력은 약했다. 1690년에(숙종 16년) ‘자매하거나 자매한 자를 매입한 자는 대명률에 따라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한다.’는 명이 내려졌고 이 수교(受敎)는 『속대전』(1744년)에 정식으로 수록되

었다. 법에 의하면 자신을 스스로 팔거나 그 자매자를 산 사람은 모두 곤장 100대, 강제 이주 당하여 3년을 살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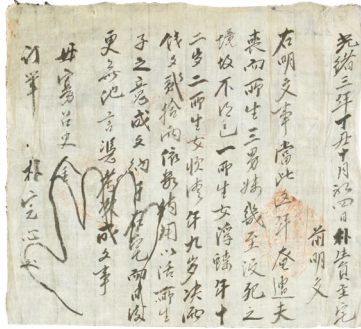
현실은 법대로 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양민들은 자신을 팔았고, 자식들도 팔았다. 심지어 자식들을 팔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도 작성했고, 그 문서의 법적 보호를 위해 관청이 공인(公認)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른바 자매(自賣)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매문서는 자매명문(自賣明文), 자매문기(自賣文記) 등으로 불린다. 표면적인 의미는 ‘자신을 판다.’는 말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자신 뿐 아니라 부모 또는 가족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팔면서 작성한 문서까지 포함한다. 문서에는 판매자, 구매자, 팔리는 대상, 증인 등이 기재된다. 아울러 ‘왜 파는지’ 그 이유도 간략하게 또는 자세하게 기술하기도 한다. 거래의 판매자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장(手掌)을 그렸다.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부분에 손을 놓고 그 손모양을 그대로 그린다. 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매문서의 법적 효력과 문서에 적힌 내용을 보호받기 위해 관청에 소지(所志)를 올려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기아(飢兒)에서 기아(棄兒)로

대개 부모와 자식은 종속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 양육,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동시에 아이들을 지배할 권리도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조선시대 자식을 ‘파는 일’도 권리라고 여겼던 듯하다.

광서 3년(1877, 고종 14년)에 김조이는 자식을 팔았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다. 아들 한 명, 딸 둘이었다. 큰딸 부접이는 열두 살,



光緒三年丁丑十月初四日朴生眞主宅前明文
 右明文事當此凶年奄遭夫
 喪而所生三男妹幾至沒死之
 境故不得已一所生女淨蠟年十
 二歲二所生女順德年九歲決俚
 錢文貳拾兩依數捧用以活所生
 子之意成文納于右宅而日後
 更無他言憑考次成文事
 母寡召史金[右手章]
 訂筆 朴定心[着名]

그림 1 고향 장두 광산김씨 집안 소장. 1877년 과부인 어머니 김조이가 딸 부점과 순덕을 박생원에게 팔아넘길 때 작성된 자매명문(自賣明文). 3남매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아들은 팔지 않고 딸들만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召史 金'이라는 글자 위에 오른손을 놓고 손모양을 그대로 그린 수장(手掌)이 있다.
 이미지 및 원문 출처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작은딸 순덕이는 아홉 살이었다. 지금이라면 겨우 초등학생이다. 김조이는 딸 둘을 박생원에게 팔았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즐거이 팔겠는가. 그런데 심지어 문서까지 작성하여 증명했다. '이후에 다른 말이 없도록 증빙하는 것'이라는 내용까지 넣었다. 혹여나 나중에 다른 말이 나거나 집안의 다른 사람이 자식 판 사실을 부정하고 되돌려달라는 소송에 대비하였다.

삼남매가 사이 좋게 살았는데, 그 중 딸 둘을 떼어내 팔아야 했던 김조이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녀가 이 자매(姉妹)를 판 이유는 생활고였다.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남편이 죽었다. 흉년까지 겹쳤다. '먹고 살아갈' 길이 없어졌다. 먹거리도 없다. 먹거리를 구할 여력도 없다. 네 식구가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다다랐다. 김조이가 택한 방법은 딸아이 팔기였다. 어떻게 할 방안이 도무지 없어 부득이하게 팔았다. '부득이'라는 말은 매매 문서에 많이 나오는 일종의 관습적 어휘다. 하지만 앞뒤 맥락에 따라 이 어휘를 쓸 때의 마음은 각각 달랐으리라. 논발을

팔 때에는 아깝고 아쉬울 터이다. 낳아 10여 년을 기른 딸을 팔 때는 어떠했을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지 않을까.

1876년은 기록적일 만큼 가뭄이 심했다. 기우제를 자주 지냈다. 4월 한 달 동안 다섯 번, 5월에는 3번 지냈는데 특히 사직단에서 특별 기우제를 지낼 때 왕이 직접 향축을 전하기도 했다. 6월에만 여섯 번을 올렸으니 거의 5일 걸러 한 차례씩 기우제를 지낸 셈이다. 가뭄이 왕의 통치와 결부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해의 강우량은 평소의 연평균에 비해 30% 이하였다고 한다. 4월 즈음에 벼를 심으면 5,6월에 논에서 벼가 자라 가을에 여물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조차 쉽지 않았고 벼가 자라기에도 마땅찮은 환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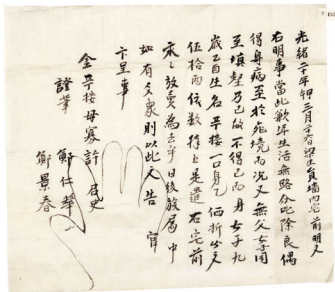
사정이 이러하니 가을 수확은 기대할 것이 없었다. 가뭄의 영향은 그 다음해까지 미치게 된다. 겨울에서 봄까지 먹거리 부족으로 백성들의 굶주림, 배굶기는 심해져갔다. 1876년 전후의 가뭄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중국은 더 심해 하북의 네 성(省)에서만도 9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한다. 1877년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몹서리칠 정도로 참혹한 기근이 들었다. 기상 변화가 심해 백성들의 삶이 거의 파괴된 지경이었던 것이다.

김조이는 남편이 죽어 생계도 막막했다. 그녀는 과부였다. 조선시대 과부의 처지는 다른 여성과 달랐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들도 있었다. 어느 과부는 남자 종이 식량을 얻으러 간 사이 겁탈당할까봐 자살하기도 했다. 과부는 그 만큼 성적 겁탈 위협에 노출되었다. 그에 비해 사회는 과부에게 수절이나 정절을 요구했다. ‘남편 없는 여성’ 곧 ‘미망인’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듯 행동해야 했다. 김조이의 경우 양반 계층 여성은 아니어서 이런 기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 후기 사람이다. 계층에 상관없이 과부는 ‘남편 잃은 여성’임을 자처하고 ‘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

용히'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생계를 위해 무작정 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먹고, 목숨을 부지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은 고난으로 다가왔을 터이다.

결국 그녀는 먹거리를 확보하여 목숨을 부지할 방책으로 딸 매매를 결심했던 것이다. 두 딸의 몸값은 20냥이다. 조선시대 쌀값이 1섬당 5냥 정도였다고 하니 20냥이면 4섬이다. 1섬이 144Kg 정도였으니 20냥 어치 쌀이라면 276Kg이다. 지금의 20Kg 포장쌀 18포대 정도인 셈이다. 이 정도 양이면 김조이와 아들, 두 식구가 목숨은 부지할 것이었다.

허조이의 사정도 김조이와 다르지 않다. 남편은 병들어 죽었다. 흉년까지 겪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그래서 아홉 살 딸을 양생원에게 팔고 50냥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형편을 '구렁텅이에 빠진' 것으로 묘사했다.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1877년과 마찬가지로 1893년과 1894년에도 전라도 지역의 가뭄은 심했고 흉년이었다. 15여 년 동안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많았다. 흉년으로 인한 먹거리 부족으로 인해 굶주리는 백성들의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



光緒二十年甲午三月二十六日梁生員牆內宅前明文
右明事當此歉年生活無路勢除良偶
得身病至於死境而況又無父女子同
至填壑乃已故不得已而身女子九
歲乙酉生名平接一口身乙備折錢文
伍拾兩依數捧上是遺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日後族屬中
如有爰象則以此文告官
卜呈事
金平接母寡許召史[手掌]
證筆鄭仁華
鄭景春

그림 2 현 소장처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이다. 과부인 허조이가 9살 딸을 팔 때 작성된 자매명문. 딸의 몸값은 50냥이며 양생원 집으로 팔려갔다. 원래 소장처는 보성 박실의 제주 양씨 집안이었다.

이미지 및 원문 출처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을 터이다.

먹거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맨 처음 단계에서 사회 집단은 서로 결속하여 공동급식소도 설치하면서 나눈다고 한다. 시간이 더 지나면 각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흩어지고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둑질,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족간의 친밀감, 신뢰도 깨져 결국 가족을 서로 파는 데까지 이른다고 한다.

김조이나 허조이는 이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른 셈이다. 물론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 초기에는 가족끼리 협력하여 먹거리도 구하고 서로 위로했을 터이다. 하지만 흉년과 배고픔이 계속되고 남편까지 죽어 생계 꾸리는 일이 막막해지자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배고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누구나 갖는 감정이다. 막다른 상황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감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자식을 팔았을 터이다.

흉년과 굶주림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졌을 때, 조선시대 국가는 어린아이를 파는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아마 그것이 굶어죽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아이들을 '구매'한 사람들은 아이에게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주니 아이도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를 판 부모는 '상품'값으로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 적어도 굶어서 죽지는 않은 테니 말이다.

이렇게 팔린 아이들은 대체로 노비나 고용인으로 살게 된다. 노비가 되면 그 자손까지도 자동적으로 노비 신분에 속하였다. 신분 세습 사회였기 때문이다. 노비는 일반 양민에 비해 거주, 이동에 제한이 있었다. 팔려가 남의 집 종이 된 아이들은 주인의 뜻에 맞춰 움직여야 했다. 부모나 가족을 만나려면 아마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팔려간 아홉 살 아이는 배고프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마음의 배고픔이 생겼다. 굶주렸던 아이는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

투명한 고통의 문서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한 여인의 사연이 인터넷에 올랐다.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딸들을 팔아 남편과 아들을 먹여살려야 했다고 한다. 김조이와 허조이의 상황과 비슷했다. 딸을 팔아야 하는 그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쉽지 않다. 문서는 담담하다. 굶주림의 위협감, 죽음에 대한 공포, 배고픔 견딜지 자식을 팔지에 대한 갈등, 자식을 팔아넘겨야 하는 고통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먹고 살 길이 없다거나 부득이하게 팔아야 한다는 말만 쓰여져 있다. 이런 표현만으로는 그녀들의 고통을 다 담아낼 수 없다. 무엇보다 팔려야 하는 아이의 마음은 문서의 어느 부분에도 표기되지 않는다. 아이의 고통은 묻혀 있다. 자매 문서는 파는 이와 팔리는 이의 투명한 고통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김덕진(2008),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 김재호(2005), 「자매노비와 인간에 대한 재산권, 1750-1905」, 『경제사학』 38, 경제사학회.
- 명레이·관귀평·귀상양 외, 고상희 옮김(2013), 『1942 대기근』, 글항아리.
- 박경(2008), 「자매문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질서」,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 샤먼 애플 러셀, 광명단 옮김(2016), 『배고픔에 대하여』, 돌베개.
- 이준호·이상임(2018), 「19세기 농민운동의 기후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6.
- 전경목(2013), 「조선후기 자매의 원인과 양태」, 『전북사학』 43, 전북사학회.
- 정형지(2003),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이화사학연구』 30, 이화사학연구소.
- 차재운(2012), 「소사(召史)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역, <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 고종실록,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MonthList.do>

부용정(芙蓉亭), 연못 도매(盜賣) 사건

광주광역시 칠석동에 부용정(芙蓉亭)이란 이름을 가진 정자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초기 김문발(金文發, 1358-1418)이 지었다고 한다. 태종실록에 그의 졸기(卒記)가 있다. 고려 때인 1386년에 남원과 보성 등에서 왜구를 물리쳐 이미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충청도, 전라도 수군도절제사에 임명되었고 1418년에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그 해에 생을 마감했다.

그는 칠석마을에 터를 잡고 정자를 세웠다. 그 앞에 못을 팠다. 정자를 세울 때는 대개 주변 환경도 함께 조성했다. 크든 작든 못을 만들기도 했다. 김문발도 못을 파 물을 대고 연꽃을 심었던 듯하다.

부용(芙蓉)은 연꽃을 말한다. 송나라 성리학자였던 주렴계(周濂溪)는 <애련설>을 지어 연꽃을 칭송했다. 연꽃은 진흙밭에 있지만 진흙의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 우아하게 위로 곧게 뻗은 연대, 크고 둥근 푸른 빛 잎, 흰색 분홍색 꽃잎들은 깨끗하게 펼쳐지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실제로 연꽃이 있는 못물이 맑고 깨끗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의 연꽃이나 연잎에는 더러운 물방울, 진흙, 먼지 등이 거의

없다. 깨끗하기가 이를 데 없다. 주렴계는 연꽃의 이런 생리(生理)를 찬탄했다. 김문발이 정자 이름을 부용으로 지은 것은 주렴계의 마음과 같았다.

그가 부용정을 언제 세웠는지 명료하지 않다. 『광주목지』에 의하면 ‘벼슬이 형



그림 1 『광주읍지』에 나온 칠석동의 부용정. 남평천과 황탄(黃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미지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참판에 이르렀지만 젊은 나이에 벼슬에서 물러나 부용정을 건립했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11년(태종 11년) 충청도 수군도절제사였을 때 '병으로 사직했다.'는 기록이 있다. 50대 초반으로 이 시기에 부용정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광산지(光山誌)』에서는 부용정이 광주 남쪽 30리에 있으며, 전 감사 김문발의 별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부용정은 김문발이 자신의 거처에 지은 정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용정은 개인 정자라는 의미를 훌쩍 뛰어 넘는다. 김문발은 칠석동에 머물면서 송나라 때 여대균(呂大均) 형제가 남전현에서 시행했던 향약제도를 본받아 향약을 시행했다. 향약을 실행할 때 이용했던 공간이 부용정이었다. 김문발은 부용정을 개인 정자로 지었지만 향약을 시행하면서 칠석마을 공공의 공간으로 기꺼이 제공했다. 부용정을 설명하는 글들은 광주 향약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광주 향약을 말할 때 부용정은 꼭 등장한다. 부용정은 더 이상 개인 정자가 아닌 광주 향약을 상징적인 공간인 것이다.

판 놨은 돈 챙겨 도망가고 애먼 사람만 매 맞고 속이 타다

1838년 2월 즈음, 동북에 살고 있던 김창신(金昌臣, 1774-1847) 등 몇 사람이 모였고 남평에 사는 광산김씨 일가 사람에게도 오라고 요청했다. 얼마 전 들은 얘기 때문이었다. 김씨 일족인 김재원(金在源)이 부용정 앞 연못을 아무도 모르게 팔아버렸다고 했다. 훗처서 몰래 판 도매(盜賣)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연못을 산 사람은 김유성(金有成)이란 사람이었다. 4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광산김씨 자금심의 기반인 부용정 일부분을 떼어내고, 그것도 광산김씨 일족이 스스로 팔아버렸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그것도 누구도 알 수 없

도록 몰래. 판 놈이나 산 놈이나 ‘흠친’ 건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김유성은 연못을 터서 못물을 다 빼내고 논으로 만든다고 공언했다. 김씨 일가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의 사연을 글로 써 관청에 호소했다. 연못 매매를 없던 일로 되돌려 놓고자 했다. 글에는 그들의 분노, 울분, 우려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해 저희들 집안의 불초한 종인(宗人) 김재원이 부용정 연못을 몰래 팔아 치운 일로 소장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김재원으로 하여금 김유성에게 연못값을 지급하고 하고 도로 무르는 일이 마땅하다.’고 처결하셨습니다. ...중략... 김유성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인갑, 김화보 등과 더불어 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자지기로 하여금 정자의 눈에 물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김재원을 찾아 연못 판 값을 받아내 김유성에 되돌려주고 매매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재원은 이미 도망쳐버렸다. 그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생활했다, 생계를 위해 연못을 팔아 돈을 챙겨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갔다. 김유성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자 연못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버텼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이인갑(李仁甲)과 김화보(金和寶)도 매매 당사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도 연못 구매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김씨 집안 사람들이 관청에 소지와 단자를 제출하여 연못을 되찾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연못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들은 ‘돈을 돌려 받지 못했으니 연못은 우리들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연못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하면서 연못의 물조차 막고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부용정에는 정자지기가 딸려 있었다. 김문발이 칠석마을에 터를 잡고 부용정도 세워 삶의 자리를 마련하자 후손들은 줄곧 이 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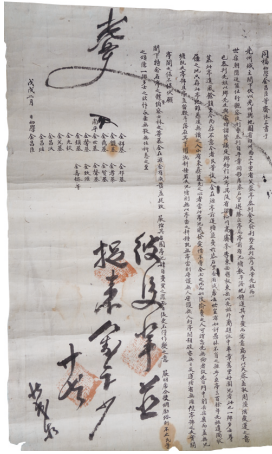


그림 2 1838년 2월에 김창신 등 17명이 연서하여 광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김재원이 부용정 연못을 물래 판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재원과 김유성을 잡아다 대질하라고 처결했다. **이미지출처** 한국학호남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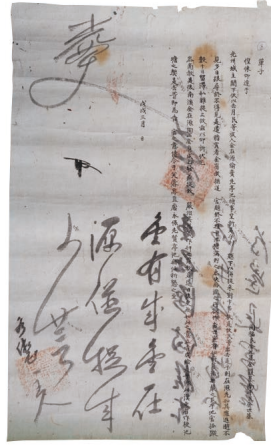


그림 3 1838년 3월에 올린 단자. 김유성과 김재원 두 사람을 잡아 오라고 했고, 김재원은 연못 값을 물어주고 환퇴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미지출처** 한국학호남진흥원

지키며 살았다. 김선명(金善鳴)대에 동북으로 이주 하면서 1695년에 부용정 인근 땅을 외손에게 팔았다. 이후 이씨(李氏), 신씨(辛氏)들이 터로 삼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정자지기가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부용정과 연못은 김씨 집안에서 계속 지켰던 듯하다.

정자지기는 연못 바로 아래에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논물은 연못으로부터 끌어다 썼다. 그런데 이인갑과 김화보가 연못 물을 끌어다 쓰지 못하게 막았다. 물이 없으면 논농사를 할 수 없다. 정자지기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생계는 막막해졌다. 그는 두 사람에게 물을 쓰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애원했고, 한편으로는 김씨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했다. 김창신 등은 이인갑과 김화보의 행태가 부당하고 패악스럽다고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해주기를 요청했다. 광주목사도 ‘이런 행패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경고를 무시하고 물을 대주지 않았다. 결국 폭력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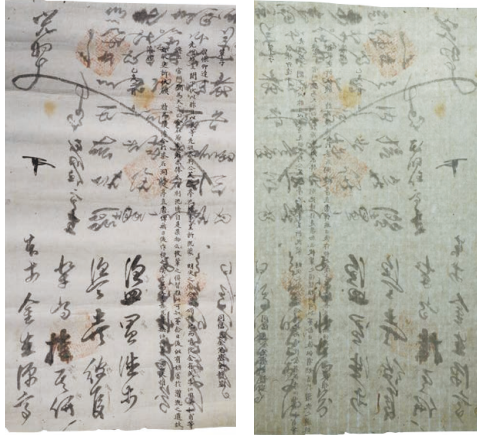


그림 4 1839년 2월에 김호기와 김태기가 광주목사에게 올린 단자와 처결 내용. 1898년에 소지와 단자를 올려 부용정 연못 매매를 무효로 해주기를 요청했다. 그 당시 목사는 '김재원으로 하여금 연못값을 돌려주게 하여 연못을 돌려받으라'고 처결했다. 그러나 김재원이 도망가버렸고 연못을 샀던 이인갑과 김화보가 연못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규탄하는 단자를 올렸다. 이에 대해 '물을 덜 때 만약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비리(非理)의 율법으로 엄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씨 일족들이 연달아 관청에 호소하고 정자지기도 물을 대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인갑과 김화보가 정자지기 부자(父子)와 할머니를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일로 동북뿐 아니라 칠석마을도 떠들썩했다. 김씨 집안의 한 사람이 연못을 훔쳐서 판 일도 떠들썩해질 일인데 마을 내 폭력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창신을 비롯한 김씨 집안 사람들은 소지나 단자를 제출하여 '연못은 김재원이 훔쳐 판 것이므로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하고, 연못물을 끌어다 논에 덜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관청에서 압력을 행사해주기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얼굴을 붉히며 구타사건까지 발생했다. 훔쳐서 몰래 판 놈은 돈을 챙겨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 대신 구타는 정자지기 가족이 당했고 김씨 집안 사람들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부용정을 지켜라 -연못이 있어야 ‘부용정’도 있나니

연못이 몰래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김창신 등 동북에 사는 김씨 집안 사람들은 분노와 우려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문발이 향약을 실행했던 그 때부터 부용정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였다.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광산김씨, 칠석마을, 나아가 광산(光山)의 긍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것이 광산김씨 집안에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였다.

연꽃 심은 못이 없으면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부용정이란 정자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역사가 없어질 수 있었다. 정자 이름들은 각각 그 근원이 있다. 정자에 대한 기(記)를 쓸 때 정자 이름의 연원을 거의 반드시 밝힌다. 달, 소나무, 구름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서부터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이나 정자 주인의 성품이나 삶의 성향에 근거하여 이름을 짓기도 한다. 그 만큼 명명의 근거는 다양하다.

부용정은 ‘연못’에 명명의 근거를 두었다. 깨끗하고 고결한 연꽃 모습을 발견하고 칭송했던 주렴계의 뜻을 품었다. 이름은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이름을 통해 드러난다. 부용정의 이름과 정체성의 근거는 바로 그 연못이다. 연못이 없으면 정자 이름의 연원도 사라지고 정자 안에 스며 있는 정신과 정체성마저도 뿌리를 둘 데가 없어진다. 지금 부용정 주변에는 연못이 없다. 현판이 있어 그것이 부용정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왜 부용정?’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다. 김창신 등은 이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지와 단자에서 ‘부용이라는 이름은 연못에서부터 나왔으므로 정자가 아무리 우뚝하게 서 있어도 연못이 없으면 이미 정자의 호칭을 잃은 것’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 부용정은 김문발이 살던 때부터 향약을 실시하던 장소였다. 뛰어난 경치를 감상하며 세상살이 긴장감을 풀어내는 쉼터에 그치지 않았

다.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환기시키는 공간이었다. 마을 풍속을 순화시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려는 뜻을 다지는 공간이었다. 경치나 즐기며 시구를 읊어대는 흥취 공간이란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광주목사에게 올리는 글에서 ‘참판공이’ 당시 선비들과 향약과 향좌목을 강론하던 곳이므로 사람들이 이 정자를 드높이고 그리워하는 것이지 그저 이리저리 거닐고 다니면서 완상하기만 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하였다. 김창신 등은 부용정이 그 이름을 잃으면 정자에 스민 향약 정신과 그 역사성조차 희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용정이 의미나 역사성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건물로만 달랑 남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현실적이면서 정자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인갑과 김화보는 정자지기가 연못 물을 쓰지 못하게 겁박했고, 정자지기는 불만에 차 있었다. 논농사는 생활 기반인데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생활 기반이 없어진다면 정자지기는 정자 관리일을 그만두게 될 터이다. 관리자가 없어 정자를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 없어질 수도 있다. 김씨 일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처음 정자를 지을 때 연못은 정자 주변을 꾸미는 부속적인 장소였다. 이제는 거꾸로 되었다. 연못은 정자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고 정자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정자가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연못에 달리게 된 셈이다.

이리저리 궁리해도 부용정과 연못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정자와 연못은 서로 짝을 이루고 한 묶음으로 있어야 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부용정이다. 그러나 부용정이 부용정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못이 필요했다. 연못만 따로 떼내어 흠쳐서 팔아버린 김재원에 대한 분노심, 부용정의 뿌리를 없애려는 행태에 대한 우려심과 위기 의식이 없을 수 없었다. 김창신을 비롯한 김씨들이

광주목사에게 호소한 것은 분노, 우려, 위기심에서 나온 일이고 부용정에 걸맞은 짝을 찾기 위한 일이었다.

지금도 의연한 부용정

부용정은 지금도 칠석마을에 있다. 기와를 얹은 2층 목조 건물이다. 고싸움과 관련한 교육관, 고싸움을 할 수 있는 넓디 넓은 마당, 마을의 집들이 둘러 싸고 있다. 연못은 비록 없어졌어도 부용이란 이름을 달고 조용한 마을 안에 서 있다. 겉으로는 평온함을 뽐내지만 그 동안 여러 고난을 겪었다. 일찍이 김창신이 40대였을 때 안보원이란 사람이 부용정과 연못 부근에 바짝 붙여 그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 일로 집안 어른신이었던 김만직(金萬稷, 1738-1819)과 함께 관청에 드나들었다. 관청에서는 ‘무덤을 파서 옮기라.’고 처결을 내렸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런데 겨우 2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부용정 연못이 몰래 팔리고 그로 인해 폭력사건까지 일어났다. 김창신은 또 다시 소지와 단자를 들고 관청에 드나들어야 했다.

부용정은 이 일들을 다 보고 들었을 터이다. 비록 자기 이름의 연원이었던 짝을 잃었어도 말없이 의연하게 서 있다. 부용이란 이름의 고결한 뜻과 광주 향약 정신을 여전히 품은 채.



사진 1 부용정

유산 상속, 자격부터 따져야 법 따라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니, 어찌할까요

꼬여 버린 계획

1657년 12월 강진. 연말이니만큼 새해를 맞기 위한 일을 해야한다. 지난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올 새해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계획해야 한다. 정부인 임씨는 80세가 다 되어가는 때여서 자신의 삶도 차근 차근 정리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지내야할지 모색해야 할 때라고 여겼다. 그녀는 ‘삶 정리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녀의 ‘삶 정리 프로젝트’는 쉽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년 전 죽은 남편이 남긴 유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다. 수양 아들에게 거의 전부 물려주고 서녀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나눠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위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발했다. 모두 똑같이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평소 말없던 사위가 유산 나눌 때가 되니 자기몫을 챙기려 하고 또 자식들 모두 공평하게 나눠가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산 상속이란 어느 집이든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건만 임씨 속내는 더 복잡했다.

남편 오신남(吳信男, 1575-1632)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셋이었다. 수양 아들인 오상지(吳尙志), 각각의 다른 첩에게서 태어난 서녀(庶女) 둘. 오상지는 오신남의 5촌 조카인 오열(吳悅)의 둘째 아들이다. 오신남과 오상지는 6촌 사이인 셈이다. 임씨 부인은 오상지가 3살이 채 되기 전에 데려다 길렀다. ‘3살이 안 된 아이를 거둬 기른 수양 자식은 친자식과 거의 같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신남과 임씨가 서두른 것은 당시 오신남이 후금(청나라)에 억류되어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였다.

후금의 누르하치가 건주에서 나와 명나라 영토를 점진적으로 손에 넣었고, 1618년에 무순(撫順), 청하(淸河)까지 진출했다. 명은 조선에 구원병을 파병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2천여 명으로 편성된 군대가 요동으로 출정했다. 오신남도 강홍립 군대에 소속되었다. 강홍립 군대는 1619년 2월 19일에 요동에 도착했고 다음 달 3월 2일에 심하(深河, 사르후)에서 후금 군대와 싸웠다.

하지만 맹렬하게 싸우던 김응하(金應河)가 전사하고 강홍립은 투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홍립과 함께 간 오신남도 10여 년 간 후금 땅에 억류된 채 지냈다. 그들의 처지는 거의 포로 수준과 비슷했다. 불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신남은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접었다. 그 때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임씨에게 편지를 보내 오열의 아들이 3세가 되기 전에 얼른 입양하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오신남과 임씨는 급작스럽게 수양 아들을 들였다. 그것도 3살이 채 안된 남자아이를.

1627년, 오신남이 다행히 풀려나 고향 강진으로 왔다. 그는 오상지가 자신을 계승할 아들이라고 주변에 널리 알렸다. 1631년에는 예조에 소지를 올려 오상지가 ‘적법한 계후자(繼後子)’ 즉 집안일과 집안 제사를 계승하여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는 공인을 받아냈다. 오신남과 임씨는 그제서야 한시름 놓았다. 만천하에 공인된 아들, 계후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임씨는 특히 오상지를 데려와 키우면서 자신의 낳은 아들과 다름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일찍이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증여했다. 남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고, 서녀나 사위들도 이러쿵저러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재산을 나누려하자 사위가 이의를 제기했다.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똑같이 나눠가져야한다고. 임씨의 ‘삼정리 프로젝트’가 유산 분배 단계에서 꼬여버린 것이다.

셈법이 다르면 줄 것도 받을 것도 달라져

오신남은 첩 둘을 두었고 그 첩들은 각각 딸 한 명씩 낳았다. 둘다 결혼해 한 명은 강진에 살고, 또 한 명은 서울에 살았다. 비록 서녀였지만 임씨는 자신이 낳을 딸처럼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나눌 때가 되자 서녀들도 상속자로 포함시켰다. 조선시대 첩의 자식들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는 있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적처 자식과 첩 자식에게 나누어준다.’는 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씨는 법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라는 정의(情誼)를 생각해 서녀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려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사위 한 명이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셈법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조선시대 아버지쪽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적처 자식과 첩 자식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상속분(相續分)에 있어서는 적처 자녀와 수양 자녀, 적처 자녀와 첩 자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적처의 자식이 있을 경우, 수양 자녀는 적처 소생의 1/7을, 양첩 자식 곧 양민 출신 첩이 낳은 자식은 1/7, 천첩 자식 즉 여종이나 기생처럼 천민 계층 출신 첩이 낳은 자식은 1/10을 받는다. 적처의 아들 딸이 모두 없을 경우 수양 자녀와 양첩 자식들은 상속분이 똑같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수양 아들을 키울 때 그 아이가 3살 미만일 때 데려왔는지, 그 이후에 데려왔는지에 따라 유산 상속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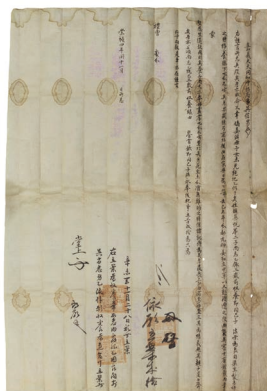


그림 1 1631년(인조9) 윤11월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신남이 조카 오열의 둘째 아들인 오상지를 양자로 삼고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예조에 올린 소지이다.

이미지출처 한국학자료센터호남권역(<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대개 3살 이전에 거둬 기를 때에는 후계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3살 이전에 거둬 기르면 ‘자기 자식과 거의 같다.’는 법 내용도 있었다. 무엇보다 적처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없을 때에는 수양 아들이 유리한 편이었다. 아버지 유산을 거의 모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상지가 바로 이 경우였다.

자식 중 누가 제사를 받아 모시느냐에 따라 재산을 더 받을 권리도 있었다. 제사 받드는 일이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그 제사를 아들이 계승하고 특히 맏아들이 계승하는 관례가 굳어감에 따라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나 아니냐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 분량이 달라졌다. 오상지는 집안 제사도 지속적으로 받들어 왔기 때문에 제사뭇을 받는 데에서도 유리했다.

첩 자식은 어떡했는가. 경기도에 사는 서녀의 어머니는 여종이었다. 오신남이 첩으로 들인 후 값을 치르고 속량해주었다. 여종이라는 천민 계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오신남이 죽은 후 수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

이처럼 상속할 재산 분량을 규정하는 조건이 다양해져서 실제 상속하거나 상속 받을 때에는 조건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었다. 재산 분배에서 풀어야할 문제는 오상지와 경기도에 사는 서녀의 ‘자격’이었다. 설행에 따라 상속 받을 분량이 달라지게 될 터였다.

오상지를 보자. 3살 이전에 오신남 집에 들어왔고 1631년 오신남이 죽기 직전 예조로부터 ‘오상지는 오신남의 아들로서 후사(後嗣)’로서 적법하다는 공인을 받아냈다. 그런데 입안에 ‘수양(收養) 즉 수양 아들이란 표현이 들어 있었다. 당시 오신남은 여러 차례 후금 사신으로 오갔기 때문에 입안을 받은 후 확실하게 마무리할 여유가 없었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 사는 서녀의 ‘자격’이었다. 그 어머니가 여종이었고 속량되기는 했지만 다른 남자에게 가 버렸다. 그녀를 양첩 딸로 봐야할지, 천첩 딸로 여겨야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행에 따라 오

상지나 서울 사는 서녀, 강진에 사는 서녀 곧 윤인철의 처가 상속 받을 유산의 규모는 더 많을 수도, 더 적어질 수도 있었다.

윤인철의 셈법은 이러한 듯하다. 우선 그는 예조에서 발급한 문서에 ‘수양’이라는 표현을 꼬투리 삼아 오상지가 ‘수양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오상지가 계후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수양 아들이므로 서녀의 배우자인 윤인철 자신의 자격과 같다고 생각했다. 서울 사는 서녀는 어머니가 이미 속량 되어 천민 계층에서 벗어났으므로 양첩 자식으로 보았다. 윤인철 자신이나 서울 사는 동서가 똑같은 양첩 자식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장인이 남긴 재산은 셋 모두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인철은 오상지가 3살 이전에 오씨 집안에 들어와 양육되었다는 사실, 그 동안 오상지가 집안 제사를 받들었다는 사실 등은 무시했다.

임씨 부인 셈법은 달랐다. 그녀는 오상지를 3세 이전에 데려왔으므로 자신이 낳은 친자식이나 다름 없다는 것, 오신남이 강진에 없었을 때, 오신남이 죽은 후 집안일과 집안 제사를 성실하게 봉행해왔다는 것, 남편이 평소 오상지를 계후자로 여겨 많은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했고 예조의 공인까지 받아냈다는 것 등을 더 중시했다. 서울 사는 서녀에 대해서는 그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여전히 친첩 소생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윤인철이 ‘적서(嫡庶)’ 차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따지고 들었던 일도 불쾌했다.

임씨 부인과 사위 윤인철 셈법이 달라지면서 임씨 부인은 재산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오상지를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여겨 그에 합당한 만큼 주고, 첩 자식이지만 어머니로서의 정의(情誼)가 있다고 생각해 그들에게도 정에 맞게 주고자 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꼼꼼하게 따져야 했다. 어떻게 하면 오상지에게 붙은 ‘수양’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적법’하고 정당한 ‘친자식’처럼 만들어 집안의 제사 계승자로서 많은 재산을 줄 수 있을지, 서울 사는 서녀를 친첩 소생으로 할

지 양첩 소생으로 할지 등등. 상속자들의 자격에 따라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엄청 차이가 날 터이니까.

상속에 관한 법이 있으므로 법에 따라 하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법 조항을 근거로 각각의 상속자를 어떻게 규정할지 즉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속분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 문제를 순찰사가 풀도록 했다. 이리저리 궁리하여 소지(所志)를 써 올려 처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의도대로 처결 받기 위한 전략을 짜야 했다. 의도는 오상지를 집안 계후자로 굳히는 일이었다.

정의(情義)로 논하자면 이 수양 아들을 3세가 되기 전에 거둬 기른 것은 남편이 후사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올 때에는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서서 기다렸고, 남편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매번 가서 인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상여를 들고 돌아와 장례를 치렀고 3년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효성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산 것이 30여 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집안 사당이나 산소, 제사 받드는 일 등을 이 아이에게 모두 맡겨 일하게 한 지도 또한 20여 년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면 후계자이니 재산을 줄 때 계후자(繼後子)로서 논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중략) 오상지는 남편의 육촌 손자뻘입니다. 비록 수양 아들이라고 칭하기는 하나 오상지 외에 계후자로서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사를 받들게 하기 위해 거둬 길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남편이 죽은 후에 오상지가 사당, 산소, 제사 등의 일을 주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수양 자녀로서 제사를 받들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상지를 3세 이전에 데려왔다는 사실, 남편이 생전에 오상지를 집안 후계자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남편이 죽자 3년상을 직접 치

른 사실, 남편이 죽은 후 20여 년 간 집안의 가묘나 산소를 돌보고 제사도 정성을 다해 받들었던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오상이지만 부각할 수는 없었다. 서녀에 대해 적모(嫡母)로서의 애정도 보여주었다.

첩의 딸들은 비록 친첩의 소생으로 시집갔지만 또한 남편의 골육으로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줄 때 법을 참작하면서, 인정상으로도 좋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임씨 부인은 첩의 딸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잘 나누어주려고 했다. 다만 사위가 오상지의 상속 자격을 따지는 바람에 서녀들의 자격도 따질 수밖에 없었다. 법 조문도 뒤져보고 그 법을 해석해보기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소지를 작성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머리 아프게 했던 그 유산 분배 문제를 순찰사의 손에 넘겼다. 훗날 일어날 말썽을 미리 막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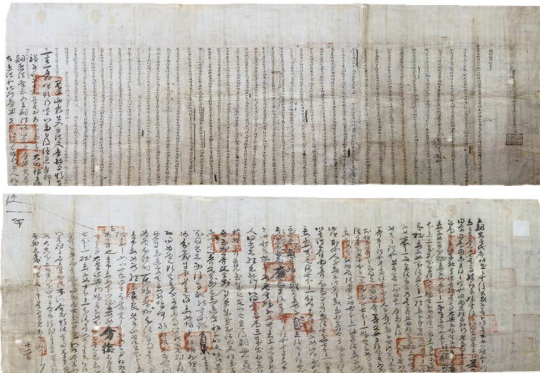


그림 2 정부인 임씨가 1657년에 순찰사에게 올린 소지. 죽은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야할지 처결해주시기를 요청했다.(위)
순찰사의 처결 내용. 임씨가 올린 소지만큼이나 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아래)
이미지출처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역(<http://hncostma.org/emuseum/service>)

순찰사에게 넘어간 문제, 그 해법은?

순찰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했다. 향촌 강진의 정부인이 올린 글이니 그저 무심하게 놔 둘 수도 없었다. 대명률, 경국대전 등 여러 법전을 뒤져가며 우선 ‘법’에 의해 처결하려고 했다. 처결은 대략 이러했다.

‘수양 아들은 원래 1/7을 받거나 적처 자녀가 없을 경우 양첩 자식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오신남이 일찍이 마음으로 오상지를 계후자로 여겼고, 계후자로서 인정 받을 만한 예조의 허락도 받았으며 그 동안 제사를 받들었으니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서녀와 같게 할 수는 없을 듯함. 윤인철 처인 서녀와 서울 사는 서녀는 처지가 다르므로 똑같이 할 수 없으니 서울의 서녀에게는 천첩의 예로써 줄 것, 다만 자녀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더 주면 법에도, 정(情)에도 잘 부합할 것임.’

임씨 부인은 먼저 정의(情誼)에 따라 유산 분배를 하고자 했다. 그리고 법전도 찾아보았다. 정과 법 사이에서 오갔다. 순찰사는 임씨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결했다. 그 후 임씨는 어떻게 했을까.

참고문헌

- 고윤수(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123, 연세대학교학연구원.
- 문숙자(1997), 15~17세기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그 특징, 『조선시대사학보』2, 조선시대사학회.
- 배재홍(1990), 「조선시대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존재양태-분재기 분석에 의한 접근」, 『대구사학』39, 대구사학회.
- 손경찬(2018),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홍익법학』 19(4), 홍익대 법학연구소.
- 손계영(2019), 「조선시대 별급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 『국학연구』39, 한국국학진흥원.
- 장정수(2021), 「심하전역 당시 광해군의 밀지와 대후금 배후교섭의 변질」, 『사총』 104, 고려대 역사연구소.
- 위백규, 『존재집』 권22, <가의 오공 행장(嘉義吳公行狀)>
한국학자료포털, <https://kostma.aks.ac.kr/>





호남학 산책 고문서와 옛 편지

인쇄 2022.10.27

발행 2022.10.31

저자 김기림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s://www.hiks.or.kr>

편집·제작 (주)스케치북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4

T 062-714-1776 E sketchboook@naver.com

비매품/무료

ISBN 979-11-90608-39-8

ISBN 979-11-90608-37-4 (세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저자에게 있습니다.